

[기획] >> 4면
우리학교 학생식당

[기획] >> 5면
우리학교 알림시스템의 한계

[사회문화] >> 8면
기초생활 수급자

[학술] >> 9면
디지털플랫폼 노동자

우리학교 식당 운영 축소, 인력난 너머의 구조를 묻다

우리학교는 지난달 25일 '조리원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이유로 식당 운영 변경사항을 공지했다. 이는 당장 저녁 식사를 교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기숙사생 및 도서관 이용 학생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높이는 등 학생 복지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우리학교 식당 운영 축소의 현황△우리학교 식당 인력난의 원인△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자.

▶ 4면에서 계속

윤고는 기자 10goeun@hufs.ac.kr

윤윤수 미스토홀딩스 회장, 우리학교 발전기금 10억 원 기부 ... '윤윤수 AI 석좌교수 기금' 조성



▲출처: 전라홍보팀

윤윤수(사회·정의 66) 미스토홀딩스(Misto Holdings) 회장(이하 윤 회장)이 모교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 발전기금 10억 원을 기부했다. 지난달 22일 서울캠퍼스(이하 설 캠퍼)에서 진행된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윤 회장은 특별 축하 후 발전기금 기부 서명식을 진행했다. 이번 기부금은 '윤윤수 AI 석좌교수 기금'으로 조성돼 향후 우리학교 인공지능 분야 교육 및 연구 기반을 강화하고 미래 인재 양성과 학문적 성과 창출에 활용될 예정이다.

박정운 우리학교 총장은 “모교 발전을 위해 큰 뜻을 전해주신 윤윤수 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기부는 우리학교의 인공지능 분야 연구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할라코리아(Halla Korea)를 설립하고 이탈리아 할라 분사 및 미국 아쿠쉬네트컴퍼니(Acushnet Company)를 인수하며 글로벌 스포츠와 패션 산업의 판도를 바꾼 세계적 기업가로 현재는 글로벌 골프 브랜드 아쿠쉬네트(Acushnet)를 보유한 미스토홀딩스를 이끌고 있다.

윤 회장은 설립 스마트도서관 건립기금을 비롯한 발전기금과 장학기금을 꾸준히 기부하며 모교 발전에 기여해왔다. 윤 회장의 누적 기부액은 약 35억 원에 달한다. 앞서 우리학교는 국가 경제 발전과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한 윤 회장의 공로를 인정해 지난 7월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를 수여한 바 있다.

이나경 기자 10leenagyeong@hufs.ac.kr

우리학교 TESOL대학원, 미국 국무부 'English Language Fellow Program' 국내 협력기관 선정

우리학교 TESOL대학원이 미국 국무부 주관 'English Language Fellow Program'의 국내 협력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우리학교는 조지타운대학교(Georgetown University) 및 주한미국대사관과 함께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English Language Fellow Program'은 지난 50여 년간 80여 개국에 영어교육 전문가를 파견해 현지 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해온 미국 국무부의 대표적 국제 교육 협력 프로그램이다. 운영과 후보자 선발은 조지타운대학교 산하 국제교육개발센터(CIED)가 담당하며 주한미국대사관이 행정을 지원한다.

이번 협력을 통해 우리학교 TESOL대학원은 미국 국무부의 심사를 거친 영어교육 전문가와 함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달 파견된 펠로우(Fellow)는 미국 유타대학교(University of Utah)에서 TESOL 교육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로 대학원 교수진으로 합류해 △교과목 강의△멘토링(Mentoring)△학생 지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번 협력은 단순 강의 지원을 넘어 재학생들이 세계적 수준의 전문가와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실무 능력과 연구 역량을 동시에 강화할 기회를 재학생들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교육과정 혁신과 국내 영어교육 현장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은 TESOL대학원 원장은 “이번 협력은 TESOL대학원의 글로벌 네트워크(Network) 확대와 국제적 위상 제고의 중요한 이정표다”며 “학생들이 전문적인 수업과 멘토링을 통해 영어교육 현장의 실무 역량과 국제 경쟁력을 함께 강화할 수 있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학교 TESOL대학원은 앞으로도 주한미국대사관과 긴밀히 협력해 △공개 세미나△공동 연구△국제 학술 교류 등 다양한 교육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나경 기자 10leenagyeong@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공공리더십대학원(야간) 2026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6학년도 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5.09.17(수) ~ 10.01(수)	2025.11.19(수) ~ 12.03(수)
고사장 발표	2025.10.15(수) 15:00	2025.12.10(수) 15:00
면접전형	2025.10.18(토) 10:00 예정	2025.12.13(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5.10.31(금) 15:00	2025.12.26(금)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5.11.03(월) ~ 11.07(금)	2025.12.29(월) ~ 01.02(금)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의회행정학과(공공정책, 의회행정)
나. 외교안보학과(외교안보, 북한, 국가안보)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외교안보학과 국가안보전공 지원자격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군사 안보 전문 분야(예:군, 정보기관, 국가 안보 분야 등)에서 최소 1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보유한 자

4.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글로벌공공리더십대학원 홈페이지-입학안내-대학원 입학 안내-대학원 원서접수)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물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5.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6.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면접 고사장 및 시간은 추후 공지)

7. 기타사항

가. 장학금“장학금은 입학 후 장학위원회를 통해 결정됨)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성적우수 장학금/공로 장학금/
학비감면 장학금/원우회 일원 장학금
※ 외교안보학과 국가안보전공 : 입학생 전원 정규학기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
나. 주말수업(토요일) 개설 / 평일수업 19시 시작(본 대학원 내 교과수강 가능)
다. 온라인 병행수업 진행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p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2팀(글로벌공공리더십대학원)
TEL. 02-2173-2428 FAX. 02-2173-3358
(우)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공공리더십대학원
Graduate School of Global and Public Leadership

디지털융합인재를 양성하는 GMC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2026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특별·일반 전형)

1. 2026학년도 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 전형 일정	일반 전형	장소
원서접수	2025.9.22(월) ~ 10.2(목)	2025.11.17(월) ~ 11.28(금)	유헤이어플라이 원서접수
서류제출	2025.9.22(월) ~ 10.2(목)	2025.11.17(월) ~ 11.28(금)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 대학원 (대학원 111호) 우편제출은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함
면접대상자 발표	2025.10.15(수) 15:00	2025.12.10(수) 15:00	개별 공지
면접전형	2025.10.18(토) 10:00	2025.12.13(토) 10:00	화상면접
합격자발표	2025.10.31(금) 15:00	2025.12.26(금) 15:00	홈페이지에서 확인
합격자등록	2025.11.3(월) ~ 11.7(금)	2025.12.29(월) ~ 2026.1.2(금)	우리은행 전국 지점 가상개좌 납부가능

*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전원 총원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미디어비즈니스 · 엔터테인먼트 · 오프라인 과정
나. 디지털미디어융합전공 - 온라인 과정

3. 지원자격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우리학교 컴퓨터공학부 전병환·장익범 교수 연구팀, 바이오헬스분야 국적과제 핵심 연구기관으로 참여

우리학교 컴퓨터공학부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헬스분야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적응형 인공지능 알고리즘(Algorithm) 기반의 피부 진단 및 고주파·초음파 융복합 피부 치료기기 상용화’ 과제에 연구기관으로 참여한다. 해당 사업은 산업부 산하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이 △관리△기획△평가를 담당한다. 해당 과제는 ㈜메디코슨(Medicoson)이 주관하며 우리학교를 포함해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튜링바이오 총 6개 기관이 컨소시엄(Consortium)을 구성했다.

해당 사업은 이번 해 4월부터 오는 2029년 12월까지 총 4년 9개월에 걸쳐 추진된다. 총 연구비는 약 68억 원으로 이 중 정부지원금은 약 52억 원이다.

우리학교 컴퓨터공학부 전병환·장익범 교수 연구팀은 해당 사업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을 담당한다.연구팀이 맡을 주요 내용은 △개인 맞춤형 치료 계획 수립을 위한 인공지능 모델 개발△고주파·초음파 복합 치료를 위한 위치 가이드(Guiding) 알고리즘 구현△예후 예측 모델△통합 시스템의 유효성 검증△2D·3D 기반 얼굴 복원 및 피부 상태 예측 등이다. 이를 통해 진단부터 치료 후 관리까지의 흐름을 고려해 각 모듈 간 연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둔다.



▲전병환 교수



▲장익범 교수

컨소시엄은 △고주파·초음파 복합 치료기기△멀티모달(Multi-Modal) 영상 기반 비침습 진단기기△온디바이스(On-device)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시간 맞춤형 치료 시스템 개발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진단△계획△치료△관리에 이르는 전주기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고령화에 따른 피부 건강 및 미용 관리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기술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기기 제어△예측 모델링(Modeling)△영상·신호 처리를 결합하는 융합 연구 특성을 바탕으로 임상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소프트웨어(Software)와 하드웨어(Hardware) 시제품을 순차적으로 도출하는 것을 지향한다.

우리학교는 이번 참여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Health Care) 분야에서 산학 협력과 연구개발 경험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학교 컴퓨터공학부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피부 진단 및 치료 분야에 특화된 모델과 소프트웨어를 제시할 계획이다. 나아가 사업 기간 동안 단계별 결과물을 축적해 통합 플랫폼의 완성도를 높이고 향후 연구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연계를 모색할 예정이다.

박서현 기자 11seohyun@hufs.ac.kr

우리학교 모의국제연합(HIMUN), 제49차 모의유엔총회 개최

우리학교 모의국제연합(HUFS International Model United Nations, 이하 HIMUN)은 지난달 23일 오후 1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센터 텍사파홀(Tex+Fa Hall)에서 제49차 모의유엔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의 의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달성 가속화를 위한 과학기술 활용과 다자협력 방안 모색’이었다.

HIMUN은 지난 1958년 ‘유엔군축’을 주제로 시작된 국내 최초의 모의국제연합이자 외국어 학술 행사다. 이번 해 67년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HIMUN은 매년 국제연합(이하 UN)의 기본 이념인 △자유△박애△평등을 계승해 공개총회를 진행해왔다. HIMUN은 △각국 대사관△기업△시민단체△정부 기관의 후원을 받아 청년들이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총회에선 UN 총회의 실제 진행 방식을 반영한 UN4MUN 의사규칙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채택해 운영했다. 모든 발언은 UN 공식 6개 언어(△러시아어△스페인어△아랍어△영어△중국어△프랑스어)



와 한국어로 실시간 통역됐다. 행사 현장엔 약 300여 명의 참가객이 참여했고 모두 통역 시스템을 제공받았다.

총회 참가국은 △미국△베트남△브라질△시리아△우리나라△일본△중국△케냐△프랑스 등 총 9개국이었다. 협의체는 두 그룹으로 나뉘었는데 △미국△우리나라△일본△중국△프랑스는 과학기술을 활용해 SDGs 달성 가속화를 주도한다. 기술 공유 역량을 갖춘 국가인 △베트남△브라질△시리아△케냐는 과학기술 역량이 제한적이지만 기술 교류와 역량 강화를 동시에 모색하는 국가로 지정됐다. 각국 대표들은 기술 구조적 제약과 SDGs 달성 진척도를 중심으로 협상과 토론을 진행하며 최종 결의안을 도출했다.

김아린(아시아·터키어 23) HIMUN 사무총장은 “과학기술은 SDGs 달성을 앞당기는 강력한 추진력이자 인류가 직면한 복합 위기를 돌파할 창조적 해법이다”라며 “그 힘이 올바르게 발휘되려면 국경을 초월

한 연대와 국제사회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총회가 △기후변화△디지털 격차△불평등 등 전 세계적 도전에 대응하는 현실적 해법과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는 장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총회의 의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서울 AI재단△양윤정 우리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정현주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최원근 우리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자문을 받아 학술적 깊이를 더했다. SDGs와 과학기술을 결합한 이번 의제는 △국제기구△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국제관계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학술의 장이 됐다.

이나경 기자 10leenagyeong@hufs.ac.kr

우리학교 장 모네 EU센터, 유럽연합(EU) 공공외교 5단계 사업 선정



우리학교 장 모네(Jean Monnet) EU센터가 유럽연합(EU)의 공공외교 사업인 ‘EU센터(Jean Monnet Centre of Excellence)’ 5단계 사업(장 모네 센터 4기)에 선정됐다. 사업 기간은 이번 해 12월부터 오는 2028년 11월까지 총 3년이다.

이번 선정은 우리학교 장 모네 EU센터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교육 및 문화 집행기관(EACEA)에 제출한 제안서 ‘EU-Korea Relations at a Crossroads’가 채택되며 확정됐다. 이를 통해 우리학교는 유럽 연구의 국내·아시아태평양 거점 위상을 한층 공고히 하게 됐다. 교육 영역에선 장 모네 모듈(Module)도 함께 선정됐다.

해당 모듈에선 향후 3년간 EU 관련 강의와 교육 활동을 지원하며 강유덕 우리학교 LT학부 교수가 지휘를 맡는다. 장 모네 EU센터 신임 소장으론 김봉철 우리학교 국제학부 교수가 선임될

예정이다.

우리학교 장 모네 EU센터는 EACEA가 EU센터로 채택하여 출범했다. 이후 지난 2011년 1단계를 시작으로 센터 1기부터 3기까지의 운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이번 4기 선정으로 총 17년에 걸친 EU의 지원 체계를 계속 이어받는다. 해당 센터는 △국내외 전문가 초청을 통한 정책 토론회 △상시화△동대문구 시민 공개 강연△서울권 대학생을 위한 EU 인증 과정(EU Certificate Courses) 운영△외교부 연계 활동△학과와 정책결정자 간 대화의 장 확대 등을 진행 중이다.

장 모네 EU센터의 목표는 우리나라와 EU 간의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이다. 센터는 앞으로 △기본협정(FTA)△위기관리 참여협정(FPA)△자유무역협정(FTA) 등 기존 협력 틀을 고도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유럽 연구 및 정책 제안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선정을 계기로 △교육△연구△정책을 잇는 선순환을 구축하고 EU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넓힌다는 방침이다.

박서현 기자 11seohyun@hufs.ac.kr

우리학교 외대학보, 외신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 진행

지난 15일 우리학교 외대학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 ‘한국의 사회문화적 이슈에 대한 청년층의 생각과 대학 학보의 현재’를 주제로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해당 간담회에는 외대학보 측 인원으로 △이승원 편집장(108기, 이하 이 편집장) △김민서 부장기자(109기) △윤고은 차장기자(110기) △송주원 기자(111기)△남우현 선임기자(107기)가 참석했다. 외신 기자 측 인원으론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National Public Radio) 백악관 특파원으로 활동 중인 디파 시바람(Deepa Shivaram) 기자△WGN 라디오(Radio)에서 활동 중인 라이언 버로우(Ryan Burrow) 기자△스크립스천 사이언스 모니터(Christian Science Monitor) 아시아 편집장을 역임 중인 린지 맥기니스(Lindsey McGinnis) 기자△허프 포스트(Huff post)에서 활동 중인 타이일러 미첼(Taylor Mitchell) 기자△폴리티코 나이트리(Politic Nightly)에서 부편집장을 역임하고 있는 칼더 맥휴(Calder McHugh) 기자△WTVD ABC11에서 뉴스 기자 및 앵커로 활동 중인 토마



스 조지(Thomas George) 기자△레이몬드 버그하트(Raymond Burghardt) 태평양시대연구소(Pacific Century Institute) 회장이 참석했다. 해당 간담회에선 △뉴미디어(New Media) 발전에 따른 기성 언론의 대응 방안 △언론인이 가져야 할 적극적 태도△우리나라 청년 세대가 갖는 정치에 대한 인식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편집장은 해당 간담회에서 “앞으로도 한국의 청년 세대의 일원으로서 시사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학

내 언론 역시 이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 언론의 현재에 대해서도 “과거에 비해 지면 발행 신문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앞으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적극적 홍보를 포함해 뉴미디어 요소를 반영한 장기적인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우 기자 10jaewoo@hufs.ac.kr

이문동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 반갑지만은 않은 학생들

최근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의 이문휘경뉴타운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주변에 여러 대단지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 1월 입주를 시작한 ‘래미안 라그란데’ 아파트는 지금까지 3069세대가 새로 입주했다. 이에 따라 외대앞역 상권 및 유동인구가 급증해 교통체증으로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마다 큰 혼잡을 겪고 있

다. 옆친데 덮친 격으로 오는 11월 4169세대가 입주할 예정인 ‘아이파크 자이’의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문동 대규모 아파트 재개발로 인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이문동 대규모 아파트 재개발로 인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

서울시는 지난 2006년 ‘이문휘경뉴타운’ 사업을 발표하며 동대문구 이문동 및 휘경동 일대의 약 24만 평 부지를 재개발 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 뒤 교통체증이 발생해 반응이 차갑다. 이문동의 인구 증가로 교통체증이 발생해 학생들의 등·하교가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문휘경뉴타운을 비롯한 대단지 아파트들이 잇따라 입주를 시작하며 설캠 정문 앞 도로와 이문로 일대가 출·퇴근 및 등·하교 차량으로 몰려 정체 구간이 형성된 것이다. 우리학교에 재학 중인 A 씨는 “평소 자가용을 이용하며 학교를 다니곤 하는데 작년엔 늦은 적이 거의 없었던 반면 올해는 간선도로 출구부터 정문까지 정체된 차량이 많아 유난히 수업에 늦는 경우가 많이 생겼다”며 “기존 등교 시간보다 30분 일찍 출발한다”고 불만을 표했다. 특히 우리학교 설캠은 강북권 주요 교통로를 담당하는 동부간선도로와 밀접해 있어 뉴타운 사업에 따른 아파트 입주 전에도 캠퍼스 앞 도로가 상당히 혼잡했다. 출·퇴근 시간엔 자동차들이 몰려 혼잡한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단지들이 들어선 만큼 교통체증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학하는 학생들의 사정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우리학교 재학생 김유빈(서양어·이

탈리아어 25) 씨(이하 김 씨)는 “학교로 등교할 때 앞지는 못해도 탈 수만 있으면 좋겠다”며 “특히 퇴근시간과 같은 첨두시엔 가끔 사람이 너무 많아 다음 버스를 타기도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김 씨는 “버스를 타더라도 차가 많이 막혀 통학에 불편함이 크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지하철의 경우 정체 현상은 없었다. 그러나 첨두시에 발생하는 혼잡스러움은 여전히 존재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래미안 라그란데 입주 전후 인구 변동 추이를 비교했을 때 개강 주 외대앞역의 평균 승·하차 인구는 각각 △11,920명△11,858명에서 △12,781명△12,934명 증가했다. 이는 각각△861명△1,076명 증가한 수치이다.

신규 아파트 입주로 인해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와 설캠을 이동하는 셔틀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불편도 심화된다. 이중전공 및 교내 활동으로 양 캠퍼스를 오가는 우리학교 글캠에 재학 중인 B 씨는 “오후 5시에 셔틀을 타면 퇴근시간과 겹쳐 발생한 정체로 인해 차가 밀려 늦거나 시간이 빠듯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우리학교 셔틀버스의 구간별 소요기간 경로를 보면 고속도로를 지나는 시간과 시내 구간을 지나는



시간이 비슷하다. 이는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아가야 할 방향

늘어난 주민 수에 따른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학

교 차원에서의 노력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협업 또한 이뤄져야 한다. 일례로 동아대 학교는 잦은 공사 및 고밀도의 유동인구로 인해 교통체증을 겪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학교 측은 부산시에 협조를 요청해 특정 시간에 대형 차량 및 공사 차량을 통제하거나 작업시간대에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우리학교 또한 동대문구와의 협의를 통해 △교통봉사대△신호체계 조정△엄격한 불법 주정차 단속과 같은 조치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또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의 경우 △관악산역△낙성대역△서울대입구역이 주변에 있는 삼중 역세권으로 학교 근처 인구가 밀집된 우리학교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서울대를 관통하는 마을버스를 지역 주민들과 서울대 학생들이 같이 이용함

따라 마을버스의 이용객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악구는 지난 1일 마을버스 신노선을 만들어 포화 상태였던 기존 노선의 이용객을 분산했다. 이에 대해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노선 신설은 주민 및 학생들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거쳐 이루어진 결과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안전과 교통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향후 바람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주민△지자체△학생 모두 협의와 소통을 통해 다양한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임재언 기자 11jaeeon@hufs.ac.kr

후속보도

우리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의 문제, 보다 실질적인 교육을 위해선

지난 1102호 기획기사에선 우리학교 소프트웨어(Software) 교육의 지원이 지닌 부족함을 지적하는 기사를 다뤘다. 반면 우리학교의 소프트웨어 교육은 교육 체계에서의 큰 허점을 가지고 있어 실질적인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

고 있다. 본 기사를 통해 △우리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의 허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의 문제

현재 우리학교 학생들은 교양 필수 과목으로 ‘컴퓨팅 사고’ 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중 하나를 선택해 이수해야 한다. 이 중 ‘컴퓨팅 사고’는 주 2시간의 대면 강의와 1시간의 온라인(Online) 강의로 구성돼 있다. 이때 온라인 강의의 경우 ‘코드트리(CodeTree)’란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는데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육 설계의 허점이 드러난다. 대면 강의에서 습득한 지식을 토대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돕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지만 오히려 비대면이란 점을 악용해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문제 풀이 시 정답을 기입할 수 있는 횟수가 별도로 제한돼 있지 않다는 점과 오답을 기입해도 별도의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단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객관식 유형의 경우 4지선다 형태이므로 이른바 ‘찍기’ 행위를 통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우리학교 재학생 김강백(공과·전자공24) 씨는 “수업을 통해 알게 돼 정답을 고른 과제도 있지만 모르는 문제가 있을 경우 찍어 맞춘 경험이 여러 번 있다”고 밝혔다. 코딩(Coding) 명령어를 만드는 과제 역시 ‘솔루션(Solution)’버튼만 누르면 정답이 공개된다. 비록 “경험치를 쌓지 못한다”는 경고가 뜨긴 하지만 과제 제출엔 아무런 제약이 없기에 사실상 학습에 어떠한 도움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강의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시험방식 또한 문제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응시

사레가 발생할 가능성에 따라 불공정한 결과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단 지적이다. 지난해 이러한 비대면 수업을 수강한 우리학교 재학생 A 씨는 “솔직히 수업을 듣지 않아도 나중에 챗지피티(ChatGPT)를 사용해 시험을 보면 됐기 때문에 성적은 잘 받았지만 강의 내용은 모른다”고 고백했다. 이러한 시험 방식은 이른바 ‘시험 중 부정행위’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A 씨는 “주변에 시험시간 중 친구 여러 명을 모아 함께 문제를 푸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하며 우리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의 허점을 지적했다.

◆나아가야 할 방향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선 우선 실질적인 복습 여부를 교수자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코드트리의 경우 전문적인 문제가 있으나 LMS의 경우 별도로 ‘시험’란을 활용해 교수자가 풀이 횟수에 제한을 둔 복습 과제를 제공할 수 있다.



문제 해결 과정이나 코드 작성 방식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심층적인 이해를 평가하는 서답형 문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단순히 교수자가 설정한 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학생의 풀이 과정을 피드백(Feedback) 하는 과정을 통해 앞에 제기된 ‘찍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제는 행식 출제 방식 역시 하나

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무작위 과제 제공을 통해 각자가 다른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정한다면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도 해결할 수 있다.

해당 과목들에 대한 강의 방식과 평가 방식을 전면 대면으로 변경하는 것 역시 효과적인 대안이다. 홍익대학교(이하 홍익대) 역시 우리학교와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홍익대의 경우 강의의 형태를 불문하고 모두 대면 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홍익대에 재학 중인 박시현 씨는 “시험은 당연히 대면 형식이 원칙이고 해당 시험 방식이 실제 학습 효과 견인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인식 개선 역시 필수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다. 특히 현재와 같이 교양 필수 과목임에도 정해진 비율에 따라 성적을 부여하는 반강제적 학습방식은 오히려 해당 과목을 학습의 대상이 아닌 해치워야 할 ‘하나의 짐’으로 인식하게 한다. 실제로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에선 “난 문과인데 왜 컴퓨팅 수업을 들어야 되냐”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성적 평가 방식을 자율평가 방식으로 변경하거나 Pass/Fail 평가 방식으로 전환해 학생들의 성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최근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우리학교 역시 이에 발맞춰 △소프트웨어△인공지능△파이썬(Python) 등의 수업 체계를 갖추는 중이다.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 혁명의 물결에 우리학교 학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보다 체계적인 교육 방안을 고려해야 할 때다.

임재언 기자 11jaeeon@hufs.ac.kr

우리학교 식당 운영 축소, 인력난 너머의 구조를 묻다

지난달 25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총괄지원팀은 조리원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이유로 2학기부터 교수회관 석식 운영과 인문과학관 식당의 김밥 메뉴 배식을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이는 당장 저녁 식사를 교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기숙사생 및 도서

관 이용 학우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높이는 등 학생 복지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우리학교 식당 운영 축소의 현황△우리학교 식당 인력난의 원인△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자.

◆우리학교 식당 운영 축소의 현황

우리학교는 지난달 25일 ‘조리원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이유로 식당 운영 변경사항을 공지했다. 이에 대해 설캠 총괄지원팀 이명우 팀장(이하 이 팀장)은 “하계방학 중 교수회관 식당과 인문관 식당에서 각각 4명의 인원이 퇴사했다”며 “인문관 식당은 일부 총원이 이뤄졌으나 숙련된 경력직의 부족으로 일손이 부족해 ‘전원의 아침밥’ 수행마저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김밥 판매를 중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갑작스러운 통보로 인해 학교 시설 내에서 안정적으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외대학보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우리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Online)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76.9%가 ‘식당 운영 축소가 학업 및 학교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특히 기숙사생과 도서관에서 학업에 집중하는 학생들이 가장 큰 불편을 호소했다. 우리학교 재학생 A 씨는 “기숙사에서 취사가 어려워 교내 식당이 든든한 한 끼를 먹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그러나 식당 운영이 축소돼 식사 해결이 번거로워졌다”고 전했다. 또 도서관에서 공부하며 교내 식당에서 자주 끼니를 해결하는 우리학교 재학생 B 씨는 “저녁엔 외식하거나 자취방

까지 가서 밥을 먹고 와야해 번거로워졌다”며 “학교가 학생들의 기본적인 복지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교수회관 식당 역시 석식 운영 중단으로 학생들의 식비 지출 부담이 커졌다. 교수회관 석식을 자주 이용하던 우리학교 재학생 C 씨는 “현 상황으로 인해 이전보다 식비를 일주일당 5만원 이상 더 지출하고 있다”며 “한 달이면 약 20만 원의 추가 지출이 요구되기에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앞서 언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8.5%의 응답자가 식당 운영 축소 이후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팀장은 “교수회관 식당은 하계방학 전부터 퇴직자가 발생해 기존 조리원분들이 야근하며 어렵게 석식을 준비했다”며 총원된 인력이 수일 내에 그만두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 부득이하게 석식을 중지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학교 측에 따르면 교수회관 석식 운영을 재개하기 위해선 경력자를 포함해 최소 6명 이상의 인력 총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저렴하고 간편해 많은 학생이 찾던 인문과학관 식당의 김밥 메뉴 역시 판매가 중단된 상황이다. 짧은 공강 시간이나 쉬는 시간을 활용해 식사를 해결하던 학생들의 선택권이 크게 줄었다는 점에서 비판이 거세다. A 씨는 “수업 사이에 10분 정도 시간이 될 때 김밥만큼 효율적인 메뉴가 없었다”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편의점 음식으로 때워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우리학교 식당 인력난의 원인

우선 현재 식당 인력난의 원인으론 낮은 임금이 지적된다. 우리학교 식당 조리원들의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한데 이는 수백 명의 식사를 책임지는 고된 주방 노동의 강도에 비례하지 않은 처사다. 서

울 동대문구의 한 식당에서 일하는 D 씨는 “대학 식당은 조리량이 많고 배식 시간이 정해져 있어 일반 식당보다 훨씬 힘들다”며 “그런데도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이라면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이직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팀장은 “조리원들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임금인상 등은 학교예산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정규직을 총원하지 않는 고용 방식 또한 문제다. 이 팀장은 “정년퇴직과 인사 노무관리의 어려움으로 정규직 채용이 한동안 진행되지 않아 정규직 인원이 일부 감소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후생과 직원 채용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우리학교 식당 관계자 E 씨는 “임금이 낮아도 정년이 보장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다”며 “계속 일할 수 있을지 미래가 불투명하다면 더 좋은 요건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식당 마감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 역시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된다. 스낵 코너의 경우 식권 출력 시간 설정으로 인해 식당 마감에 제시간에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마감 시간인 오후 6시 40분에도 식권 출력이 가능하다 보니 해당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마감 시간이 지연되는 것이다. 식당 관계자 F 씨는 “6시 40분에 라

는 보조 인력의 개념이다.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며 장학금 혜택을 받고 식당 운영팀은 가장 필요한 시간대에 즉각적으로 인력 공백을 메울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조리 노동자들은 과도한 육체적 부담에서 벗어나 핵심 업무인 조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또한 스낵 코너의 식권 발권 시스템처럼 구조적으로 마감을 늦추게 만드는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마감 시간을 고려해 식권 발권 마감 시간을 최소 10분 이상 앞당겨 모든 직원이 근무 시간 내에 업무를 마칠 수 있도록 운영 시스템이 합리적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생활임금과 고용 안정 보장이 시급하다.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 급여와 임시직 위주의 고용 형태는 숙련된 조리 인력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학교 식당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조리원 중 일부는 더 나은 처우를 보장하는 초등학교 공무원 등으로 이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결국 식당 운영의 질적 하락과 인력난의 악순환으로 귀결된다. 이와 관련해 F 씨는 “숙련된 조리원 한 명이 신입 2~3명의 몫을 한다”며 숙련된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팀장은 “과거부터 학교식당은 교내 구성원의 복지를 위해 적자로 운영됐고 그 적자를 교비로 어렵게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최근 식자재 가격 급등으로 확대

된 적자 폭과 높아진 근로자들의 복지 요구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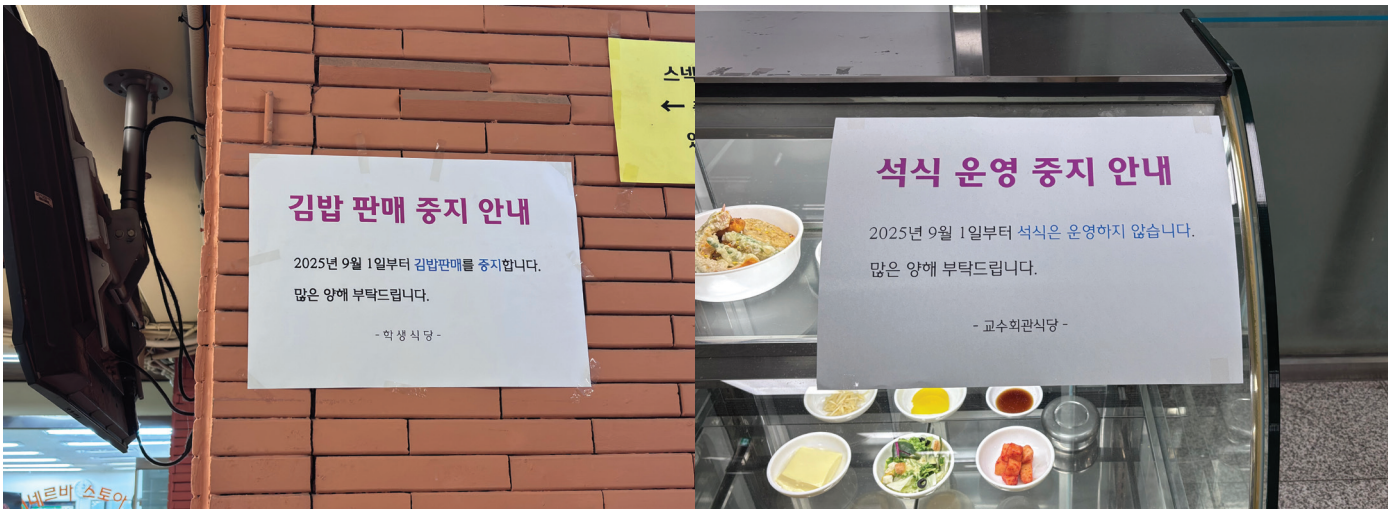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노동자△학교△학생 3자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여 소통을 제도화해야 한다. △노동자 대표△학교 측 관계자△학생 대표가 정기적으로 만나 △식당 메뉴△가격△노동 환경 등을 함께 논의하는 공식적인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잠재적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팀장은 “지금도 총학생회와 긴밀

히 소통하고 있고 총학생회와 식당 만족도 조사도 협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과의 소통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학생과 후생과 직원 두 주체가 모두 상설 협의체 구성에 찬성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총학생회는 현재 추가적인 협의와 보완책을 준비 중이며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노동자에 대한 합당한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통해 후생과 직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곧 학생들의 안정적인 식사권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인력난 현상에 대한 임시방편적 대응을 넘어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구조적 해법이 필요한 때다.

◆나아가야 할 방향

먼저 인력 수급 문제의 경우 잔존 인력을 조리 업무에 투입하고 배식 및 세척 업무와 같은 비주요 작업을 보조할 근로장학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우리학교 글로벌 캠퍼스를 비롯해 △경희대학교△동국대학교△중앙대학교 등 다수의 대학에서는 이미 이와 같은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용하며 안정적인 식당 운영을 끌어내고 있다. 이는 숙련된 조리 인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가장 혼잡한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투입돼 업무 강도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키



난무하는 알림 속, 학생 편의를 위한 학교 알림 시스템을 위해선

우리학교는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문자△이메일(이하 메일)△카카오톡(KakaoTalk, 이하 카톡)△학교 전용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앱)을 통해 학교와 관련된 각종 알림을 전달한다. 그러나 학교 알림 전달 체계가 학생들의 실제 요구와는 맞지 않는 방

식으로 운영되며 지속적인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 알림 시스템 운영 현황△학교 알림 시스템의 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학교 알림 시스템 운영 현황

우리학교는 자체 개발한 앱을 통해 △장학△채용 △학사 등에 대한 공지를 학생들에게 전달한다. 학생들은 앱에서 카테고리(Category)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의 메시지로도 안내를 받는다. 성적 열람 기간엔 성적 입력 알림이 실시간으로 발송된다. 또한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메일을 통해 행정 안내 및 홍보성 알림을 받고 문자와 학교 공식 카톡 채널을 통해서도 공지가 발송된다. 주로 △외국 어연수원△장학팀△진로취업센터에서 운영하는 행사와 프로그램 안내가 전송된다. 학생들은 이와 같이 다채로운 경로를 통해 학교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다.

그런데 알림 발송이 가능한 시간의 기준은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 공지들은 일괄적으로 발송되기에 개별 학생이 원하는 알림만 선별적으로 수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승운 우리학교 정보시스템 팀장(이하 정 팀장)에 따르면 우리학교 알림엔 별도의 우선순위가 존재하지 않고 작성된 순서로 발송된다. 기본적으로 알림은 교내 직원의 근무 시간대에 발송되기에 작성자가 학교 시스템에 로그인해 직접 발송하거나 시스템에 의해 자동 발송된다. 대량 메일 발송 시스템인 ‘EMS’와 교수자가 보내는 ‘E-class’ 알림은 실시간 발송 시 활용을, 행정용 통합 메시지 시스템 ‘UMS’는 낮 시간대 발송 시 활용을 각각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작업 할당 과정에서 알림이 밀려 저녁 시간에 발송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외대학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응답한 모든 학생들이 학교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전체가 앱으로 알림을 받고 있으며 △카톡(77.3%)△메일(36.4%)△문자(27.3%) 순으로 사용이 많았다. 또한 응답자의 77.3%가 알림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개선 필요성에 대해선 60%가 동의했다. 구체적인 불편 사항으로 △광고성 알림 과다△중복 알림으로 인한 피로감 △중요 공지 누락 등이 있었다. 이는 학교 알림 시스템이 본래 취지와 달리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교 알림 시스템의 문제점

현재 우리학교는 어떤 알림이 어느 채널로 발송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동일한 내용이 여러 채널에서 중복 전달되거나 어떤 공지는 앱과 문자로 동시에 오지만 일부는 홈페이지에만 게시돼 학생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학생

들은 수많은 알림 속에서 중요한 공지를 가려내기 어렵다. 여러 개의 전화번호로 광고 문자가 발송돼 일일이 삭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지적된다. 또한 광고성 알림은 반복적으로 도착하지만 △수강신청 일정△성적 발표△장학금 마감일과 같은 핵심 정보는 제때 전달되지 않거나 마감일 직전에 오는 경우도 있다. 우리학교 재학생 A 씨는 “학교 알림은 하루에 수십 개가 오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건 한두 개뿐이다”며 “홍보성 알림 때문에 정작 중요한 공지를 놓칠 때가 많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지난해 7월 재학생 B 씨는 부전공 신청 기간을 확인하지 못해 신청을 놓쳤다며 “광고성 알림은 꾸준히 오는데 정작 중요한 공지는 오지 않거나 늦게 온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정 팀장은 이에 대해 “행정부서는 학생과의 접점 및 소통 수단이 없어 홍보용으로 비슷한 공지를 반복 발송하지만 업무상 뚜렷한 기준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발송 시각 역시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주말이나 심야에도 알림이 도착해 학생들을 당황하게 한다. 지난달 10일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엔 “주말 새벽 1시에 카톡으로 공지를 받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공지는 긴급 사안이 아닌 하계 학위수여복 대여 신청 안내로 정보시스템팀의 확인 결과 총학생회의 요청으로 학생지원팀이 예약 발송을 걸었으나 발송 시간이 설정되지 않아 자정에 자동 전송됐고 이후 1시간 뒤 학생들에게 알림톡이 재차 발송된 것이다.

알림 거부 설정이 까다롭단 문제도 지적된다. 현재 앱엔 푸시 알림 활성화 여부 안내만 있을 뿐 거부 설정 기능은 존재하지 않는다. 알림을 막으려면 휴대전화 설정에서 별도로 차단해야 하며 문자 알림은 해당 전화번호를 차단해도 다른 번호로 동일한 안내가 발송되기도 한다. 메일 역시 각각의 포털(Portal)에서 수신 차단을 설정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전체 수신 또는 차단밖에 선택할 수 없어 불필요한 알림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발송의 불안정성 역시 학생들의 불편을 가중시킨다. 동일한 공지가 단시간에 연속적으로 도착하거나 반대로 발송돼야 할 알림이 누락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공지가 누락돼 필수 정보가 전달되지 않으면 학생 개인의 혼란을 넘어 학사 운영 전반에 대한 비효율성 및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재학생 C 씨는 “학교 알림을 믿을 수 없어 그냥 홈페이지를 수시로 둘러거리며 직접 확인한다”고 말했다. 각종 알림 누락의 원인에 대해 정 팀장은 “학생들이 앱 푸시나 알림톡 수신을 비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다”며 “단체 메일은 2만 건 이상을 한 번에 발송하다 보니 실제 전송 시간과 발송 설정 시간 사이에 차이가 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교과목의 성적 입력 시 앱으로 실시간 알림이 오지만 발송이 지연 및 누락되는 일이 잦단 문제△변경된 성적 재입력 시엔 다시 알림이 오지 않는단 문제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재학생 D 씨는 “성적이 바뀐 줄 모르고 나중에 확인해 당황했다”며 “성적과 같이 예민한 정보는 제때 다시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나아가야 할 방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비스의 이용자인 우리학교 학생들의 의견이다. 알림 서비스의 개선 희망 사항에 대해 설문 응답자들은 △성적 변경 알림 추가△알림 거부 및 필요한 수신 설정 안내△알림 중복 개선△중요 공지의 신속한 안내 등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현재 운영 체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보다 정교한 발송 기준과 학생 맞춤형 서비스 도입이 필요한단 지적이 제기된다.

우선 알림 발송 △경로△기준△시간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안내가 필요하다. 채널별 발송 방식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발송 시각을 표준화하면 중복 알림이나 심야 알림으로 인한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이는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생활을 존중하고 편의성과 신뢰성 역시 증가시킬 수 있다. 실제로 지난 8일 정보시스템팀은 학생들이 알림 발송 시각에 혼란을 느낀다는 점을 인지하고 예약 발송 설정 시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 시간대 설정이 불가능하도록 유지보수 업체에 요청했음을 밝혔다.

알림 거부 설정 절차의 간소화 및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 서울사이버대학교(이하 서울사이버대)는 매년 10만 건이 넘는 SMS 발송량 수치를 분석해 △과도한 발송△무의미한 내용△중복 발송으로 인한 불쾌감 유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SMS 수신 여부 관리 시스템’을 도입 및 운영 중이다. 서울사이버대는 학생이 직접 수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알림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학교 역시 알림을 카테고리별 및 채널별로 세분화하고 학생이 구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세부 설정 기능을 개선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워싱턴 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가 실시하고 있는 UW Connect 시스템은 필수 지정 알림을 제외한 나머지를 구독 또는 비활성화할 수 있도록 세부 설정해 놓았으며 학습관리시스템(LMS) 업체 도세보(Docebo)는 알림 종류별로 △발송 시각△수신자△시간대를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및 안내한다. 이러한

해외 사례는 학생 맞춤형 알림 설계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 하다.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반복 발송이나 누락 같은 시스템 불안정성 개선도 시급하다.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관리 시스템은 과거 △기능 제한 △사용자 불편△운영 병목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데이터 정확도를 강화해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오류를 최소화해 △신뢰도△업무 효율성△운영 투명성을 높였다. 우리학교 또한 앱 내에서 불편 사항 관련 문의와 의견 제안을 수렴받는 기능이 있다. 작성한 의견은 검토 후 다음 개선 작업에 반영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 불편사항과 오류에 대해 자세한 사례를 들어 제보할 수 있다.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 해당 기능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성적 변경 및 확정 알림의 도입도 필요하다. 이화여자대학교(이하 이화여대)는 지난 2016년부터 교과목 성적 확정 알림 시스템을 도입해 교과목의 성적 확정 시 ‘E-WHA HOME’ 앱을 통해 성적 확정 알림이 전송된다. 이 제도는 학생들의 성적 이의신청 기간을 보장하고 교수의 입력 기한 준수를 유도해 학생 편의를 높이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이를 통해 성적 수정 및 재확정 여부를 학생이 알지 못해 추후 확인 후 발생하는 민원을 방지할 수 있으며 성적 입력 기간 동안 학생이 수시로 성적 확인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이화여대 재학생 신수빈 씨는 “교과목의 성적이 확정됐음을 안내해 줘 직접 확인하러 들어가지 않아도 되어 편리하다”고 전했다.

알림 서비스는 어디까지나 학사 운영을 지원하는 보조 장치이다. 그러나 현재처럼 불필요한 알림이 과다하고 정작 중요한 공지는 누락되는 등 여러 아쉬움이 많은 체계에선 학생 개인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분명하다. 앞으로 보다 학생 친화적이고 체계적인 알림 서비스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정과 환대가 충만했던 따뜻함의 불가리아

지난 7월 9일부터 8월 5일까지 약 한 달간 불가리아(Bulgaria)에 다녀왔다. 불가리아에 첫 발을 들인 후 약 일주일만 수도인 소피아(София)에 혼자 여행을 갔고 그 이후엔 벨리코 터르노보(Велико Търново) 지역의 벨리코 터르노보-성 키릴과 메토디 대학교(Велико търновския университет “Св. св. Кирил и Методий”)의 여름 세미나(Seminar)에 참여했다. 처음 공고를 봤을 땐 고민을 많이 했



다. 불가리아어 실력을 향상할 수 있다는 점에선 참여하고 싶었으나 아직 언어를 배운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아 적응할 수 있을지 크게 우려됐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며 신청을 권유하셨고 나는 다소 낯선 나라로 떠나게 됐다.

사실 소피아는 볼거리가 많은 도시였다. 구 공산정권의 모습이 드문드문 남아 있는 건물의 모습이 색다른 듯했으나 아름답다고 하기엔 다소 낯선 모습이었다. 오히려 밤이 되면 분위기가 음산해져 조금 무섭기도 했다. 밤엔 활동을 자제하란 현지인의 조언에 따라 해 질 무렵이면 호텔로 바로 돌아갔

다. 이곳에선 긴장한 채 유명한 정교회 건축물 몇 곳만 돌아다녔던 기억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벨리코 터르노보는 달랐다. 오랫동안 수도 역할을 했던 벨리코 터르노보는 우리나라로 치면 신라의 경주 같은 곳이다. △오밀조밀한 집스웃음으로 반겨주는 사람들 △편하게 널브러진 고양이들△형형색색의



꽃, 정말 동화 같은 풍경이 있는 예쁜 도시였다. 만약 이곳에서 숙소를 예약하게 된다면 아센 기념비(Паметник Асеновци)가 보이는 곳을 추천한다. 골목 계단을 올라가면 바로 변화가가 있어 생활하기에 무척 편리하다. 변화가엔 △기념품점△식당△카페 등 다양한 가게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우리나라 식자재 마트의 존재였다. 규모는 조금 작았지만 △냉면△막걸리△소주△떡볶이 밀키트(Meal Kit) 등 다양한 음식을 팔고 있었다. 이런 식자재 마트뿐만 아니라 정말 작은 동네 슈퍼마켓(Supermarket)에서도 우리나라 라면을 팔았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에 대해 실감했다.

불가리아에서 가장 불편했던 건 교통수단이었다. 이곳에선 구글 지도가 무용지물이었기에 ‘Moovit’란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앱)을 꼭 준비해야 했다. 이 앱에선 구글맵에 나오지 않는 대중교통 수단을 자세히 알려준다. 불가리아 대중교통엔 △버스(автобус)△트롤리 버스(тролейбус)△트램(трамвай)가 존재하는데 벨리코 터르노보에선 사실상 버스만 이용한다. 물론 택시(такси)도 존재한다. ‘TaxiMe’라는 앱이 가장 간편하며 사기 위험을 줄여준다. 다만 이 앱은 소피아에서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고 벨리코 터르노보에선 이용이 불가했다. 현지인에게 물어보니 “이곳에서 택시를 잡으려면 직접 택시 회사에 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잠시 여행을 온 우린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불가리아 안에서 보낸 한 달은 정말 더웠다. 폭염 경보를 알리는 재난 문자도 수차례 받았고 우리나라보다 낮이 길어 힘들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음식을 나눠 주거나 도와주려는 마음들이 다정해서 좋았다. 우리나라가 한글을 창제한 것처럼 키릴 문자의 기원도 불가리아이기 때문인지 유독 친근감이 많이 드는 나라였던 것 같다. 마침 내년에 유로로 통화가 바뀌게 되니 다른 뜻밖은 점이 많은 이 나라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또 여행 가면 좋겠다. 나는 여전히 불가리아에서 기념품으로 사 온 장미 화장품을 사용할 때면 불가리아가 그리워지곤 한다. 장미 와인 한 잔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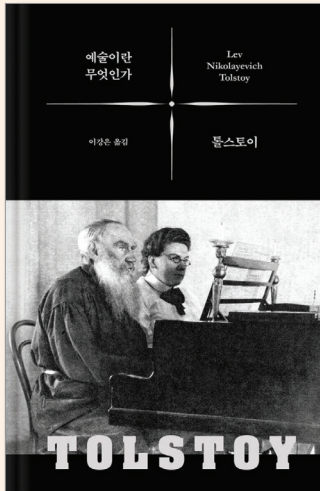
유나경 (국가전락 · 그물25)



러시아

<예술이란 무엇인가>

- 예술은 ‘감염’이다: 톨스토이가 던지는 예술의 본질 -



레프 톨스토이(Lev Tolstoy)의 ‘예술이란 무엇인가’는 예술을 둘러싼 막연한 통념을 걷어내고 그 본질을 파고든다. 톨스토이가 내린 예술의 정의는 단순하고도 강력하다. 바로 ‘감염’이다. 그에 따르면 예술은 작가가 경험한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해 함께 느끼게 하는 인간의 활동이다. △비애△용기△평화△희열과 같은 거대한 감정부터 익살스러움이나 고평압 같은 소소한 감정까지 넓은 범주가 존재하지만 실상 그 종류와 깊이는 중요하지 않다.

작가가 느낀 감정이 △색채△선△언어△음향 등의 매개를 통해 관객에게 성공적으로 ‘감염’되지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술이란 것이다. 이는 예술이 미(美)나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닌 감정의 공유를 통해 사람과 사람을 잇는 근원적인 교류의 수단임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더 훌륭한 예술 즉 더 강력한 감염을 만들어내는가? 톨스토이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감정 전달의 명확성△예술가의 진심△전달되는 감정의 개성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술가의 진심이다. 예술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이 얼마나 진실하게 전달되는지가 예술의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인 것이다.

톨스토이의 정의는 예술의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그 본질을 날카롭게 묻는다. 전문 예술가가 아닌 평범한 사람이 취미 활동 속에서 느낀 순수한 감동을 타인에게 진솔하게 전달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예술이 될 수 있는가? 톨스토이는 이러한 가능성을 긍정하면서 한편으로 목적 없이 기교만 연마하는 예술 활동이 인간의 삶을 쇠잔하게 만든다고 비판한다. 예술이 진정한 감정의 교류가 아닌 단순한 오락이나 허영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한 것이다.

책의 후반에서 독자는 큰 충격과 마주하게 된다. 톨스토이는 “우리 사이에 예술로 인식되는 것들에 어떤 희생도 바쳐져서는 안 된다”며 당대의 예술 대다수를 인류를 억압하는 잔인한 악으로 규정하며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보기에 당시 예술은 진실한 감염의 힘을 잃고 소수 상류층의 유희를 위해 복무하는 타락한 존재에 불과했다.

오늘날 그의 극단적인 결론에 모두 동의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예술의 본질이 기교나 명성이 아닌 진실한 감정의 교류에 있다는 점은 여전히 많은 이들로 하여금 깊은 울림을 준다. ‘예술이란 무엇인가’는 우리에게 예술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여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든다. 가장 위대한 예술은 가장 솔직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윤교은 기자 10goeun@hufs.ac.kr

국제지역 전문가 양성의 요람 국제지역대학원 2026학년도 전기 모집

1. 국제지역대학원 모집

◎ 석사학위과정 / 박사학위과정 / 석·박사 통합학위과정 모집 전형 일정

구 분	1차 모집	2차 모집
온라인 원서작성	원서작성: 2025. 9. 30(화) ~ 10. 14(화)	원서작성: 2025. 11. 11(화) ~ 11. 20(목)
면접 전형일	2025. 11. 1.(토)	2025. 12. 6.(토)
입학설명회	2025. 11. 7(금) 예정 (Webex를 통한 온라인 입학설명회) 변동 가능	

• 온라인 접수사이트 : <http://www.uwayapply.com>

※온라인 입학설명회 세부 안내는 추후 국제지역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단,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특징

가. 다양한 장학금 제도
나. 유엔평화대학 이종학위 프로그램 운영(국제학과, 한국학과, 중남미학과, 유럽연합학과)
다. 3+1제도 시행(선발자에 한하여 재학 중 1학기는 해외에서 학점 취득)
라. 폭넓은 다양한 지역학, 국제학 과목 개설
마. 졸업 후 많은 동문들이 국제기구, 공공기관 국제협력실, 대사관, 국제 연구기관 등에서 국제지역 전문가로 활약 중

◎ 문의처: 02)2173-2448, 2449, 2434 / Email: hufsgsias@hufs.ac.kr
- 국제지역대학원 홈페이지: <https://gsias.hufs.ac.kr>

2. KOTRA-HUFS 통상 협동 특별과정 모집

◎ 모집: 석사학위과정(4학기)

학 과 (전 공)	학 위
국제지역전략학과 (KOTRA-HUFS 통상 협동 특별과정)	국제지역학석사, 경제학석사

◎ 모집일정

구 분	1차 모집	2차 모집
온라인 원서작성	원서작성: 2025. 9. 30(화) ~ 10. 14(화)	원서작성: 2025. 11. 11(화) ~ 11. 20(목)
면접 전형일	2025. 11. 1.(토)	2025. 12. 6.(토)
입학설명회	2025. 11. 7(금) 예정 (Webex를 통한 온라인 입학설명회) 변동 가능	

• 온라인 접수사이트 : <http://www.uwayapply.com>

◎ 특징

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출신 교수진 초빙
나. KOTRA의 통상전략 및 지역통상 현안 분석을 기반으로 국제지역대학원의 고유가치인 지역학 접목
다. 통상환경 + 실무이론 + 지역별 심화 연구를 아우르는 실무 통상 전략기 양성을 목표(커리큘럼 방향은 추후 변경 가능)
라. 졸업 시 학위기와 함께, 별도로 KOTRA 사장 영의의 KOTRA-HUFS 통상 협동 특별과정 수료증 수여
마. KOTRA 현지 무역관 연계 단기 현장학습 추진
바. GBC(글로벌 비즈니스 컨설턴트, 민간 1급) 자격증 연계

◎ 문의처: 02)2173-2448, 2449, 2434
Email: hufsgsias@hufs.ac.kr

- 국제지역대학원 홈페이지: <https://gsias.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국내 최고의 English Language Teaching Program”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야간) 2026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6학년도 전기 입시일정

구 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5.09.18(목) ~ 10.02(목)	2025.11.14(금) ~ 11.28(금)
고사장 발표	2025.10.15(수) 15:00	2025.12.10(수) 15:00
면접전형	2025.10.18(토) 10:00 예정	2025.12.13(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5.10.31(금) 15:00	2025.12.26(금)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5.11.03(월) ~ 11.07(금)	2025.12.29(월) ~ 2026.01.02(금)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총원상향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나. Department of ELT Materials & Technology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 · 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적 제출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6. 전형장소: 서울캠퍼스 (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일은 추후공지)

7. 기타사항

가. 신입생 입학성적 우수장학금(학과별 약간 명)

나. 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학과별 약간 명)

다. 현직 교사 장학금(매학기 지급)

라. 학점 인정 혜택 (한국외대 TESOL 전문교육원 수료자, TESOL 관련 석사학위수지자, TESOL 자격증 취득자)

마. TESOL 연구과정(자격증 과정) 수료자 우대

바. 복수학위프로그램(법률대학교), 3+1 프로그램(하와이대학교)

사. Internship 프로그램(California State University, Selkirk College)

아. 추가학점 이수트랙선설 (논문 · 졸업연구보고서 대체, 2021년 신입생부터 적용)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tesolg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9.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교학과

TEL. 02-2173-3521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GRADUATE SCHOOL OF TESO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청년의 초기 퇴사, “MZ세대라서”가 아니다

이번 해 하반기 공개 채용이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기업은 채용 과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지만 신입사원의 초기 퇴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청년이 입사 후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회사를 관두는 경우가 늘면서 기업과 청년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다. 본 기사를 통해 △신입 퇴사 및 이직 현황△높은 퇴사율의 원인△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자.

◆신입 퇴사 및 이직 현황

퇴사와 이직을 이행하는 비율은 20대 청년층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지난 6월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일자리 이동 통계 결과'에 따르면 일자리 이동률은 29세 이하가 21.1%로 가장 높았다. 이는 △30대(15.6%)△40대(13.1%)△50대(13.7%)△60대(14.1%)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 또 지난 5월 구인 및 구직 사이트 인크루트(Incrut)에서 인사 담당자 446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초기 퇴사한 신입사원의 평균 근속 기간은 △1~3년(60.9%)△4개월~1년 미만(32.9%)△3개월 이하(6.3%)로 집계됐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퇴준생'과 '중고 신입' 등의 새로운 키워드(Keyword)도 등장했다.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에 따르면 퇴준생은 직장에 다니며 창업이나 이직을 위해 준비를 하는 사람으로 퇴사 준비생의 준말이다. 한편 중고 신입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곳에 신입으로 입사한 사람을 뜻한다. 이 같은 단어의 등장을 통해 퇴사와 이직이 청년 고용 시장에서 흔해졌음을 알 수 있다.

청년의 초기 퇴사 및 이직은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큰 문제를 안긴다. 먼저 청년 구직자의 입장에서선 중고 신입의 유입으로 무경력자의 경쟁 부담감이 커진다. 20대의 이직은 개인에겐 정체성 탐색 과정일 수 있지만 집단적 측면에선 무경력 지원자에게 불리한 현상이다. 실제로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이 실시한 '2025년 상반기 주요 대기업 대학 졸업자(이하 대졸) 신규 채용 계획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대졸 신규 입사자 중 28.9%는 이미 관련 경력이 있었다. 박용민 한경협 경제조사팀장은 “경기가 둔화하고 통상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기업들이 신속히 성과를 낼 수 있는 실무 경험을 가진 인재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채용 전반에서 경력 있는 인재를 우대하는 분위기가 다소 우세하다”고 분석했다.

회사 차원에서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손실을 야기한다. 우선 채용 과정에 투자하는 요소에 비해 경제적 손실이 커진다. 예컨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의 '2023년 하반기 기업 채용 동향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10개 중 7개 이상이 신규 입사자의 초기 퇴사로 인한 손실 비용이 1인당 2천만 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는 △교육△입부△인수△인계△채용 등에 들어간 비용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또한 초기 퇴사는 조직 차원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앞서 언급한 인크루트 조사에 따르면 인사 담당자가 생각하는 초기 퇴사가 조직의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10

명 중 8명 이상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신규 채용 인력을 현장 프로젝트(Project)에 빨리 투입하기 위해 교육 및 적응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퇴사하는 경우가 발생할 시 인력 충원에 낭비가 심하다”고 밝혔다. 이어 “퇴사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새롭게 채용하면 구인 및 면접에 시간이 소요되기에 그동안 대체 인력이 없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높은 퇴사율의 원인

한대신문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 A 씨는 “모든 것을 청년세대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시스템 문제에 대해 돌아봐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년이 새 일자리를 구하는 까닭은 단순히 청년세대의 개인주의적 성향뿐 아니라 사회 구조적 원인 또한 작용한다.

먼저 청년들은 구직 시 해당 직무에 대한 사전 파악이 미흡해 취업 후 예상과 다른 업무를 경험할 수 있다. 앞서 인크루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9%가 꼽은 초기 퇴사의 가장 큰 이유는 '직무 기대치와 실제 역할 간의 불일치'였다. 이는 청년의 개인적 사유와 더불어 지원자가 구직할 때 정보 입수에 어려움을 겪어 직무 이해도가 부족해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023년 청년 구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청년 구직 현황 및 일자리 인식 조사'에 따르면 정보 획득에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10명 중 6명꼴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노동 가치관 차이나 기업과의 마찰 등 신입사원과 기업 간 문화 불일치로 인해 이직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한대신문에 따르면 21명의 청년 퇴사자의 인터뷰로 구성된 '회사가 괜찮으면 누가 퇴사해'를 지은 천주희 작가는 “사회적 감수성과 인권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고 이는 일에서도 중요한 척도가 됐다”며 “반면 기성세대는 과거의 노동 윤리를 여전히 중요한 가치로 인식한다”고 전했다. 구인 및 구직 사이트 사람들의 지난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조직 문화 불만족으로 인한 퇴사는 3명 중 1명꼴을 기록했다. 대표적으론 불필요한 야근 강요가 있다. 한대신문에 따르면 청년 퇴사자 A 씨는 “애사심과 주인의식을 강조하는 회사 분위기에 주말 출근했지만 돌아오는 보상은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퇴사 예정자 B 씨는 “정시에 퇴근하러면서 일은 넘치게 주고 퇴근 직전에 일을 주기도 했다”고 전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대기

업 선호 현상도 청년 초기 퇴사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양극화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기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연합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수치는 우리나라가 58%인 데 반해 △독일(85%)△미국(65%)△영국(72%)△일본(74%)로 집계됐다. 이는 청년들이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성장 기회△복리후생△연봉△평판 등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조건이 좋은 대기업을 우선시함을 시사한다. 앞서 언급한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은 중소기업 취업을 피하는 이유로 △고용 불안정 우려△낮은 연봉△열악한 근로 문화를 꼽았다. 이는 청년에게 임금뿐 아니라 복지와 안정성도 중요한 고려 요소임을 보여준다.

◆나아가야 할 방향

청년의 초기 퇴직은 단순히 책임감 없는 MZ세대의 특성으로 치부할 것이 아닌 기업과 사회 모두가 노력해야 할 범사회적인 문제이다.

먼저 채용 전과 후 각각의 과정에서 초기 퇴사를 방지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채용 전엔 정보 격차를 줄임으로써 실수가 입사 전 예상치 달라 퇴사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취업 준비생에게 △잡코리아△잡플래닛(Jobplanet)△캐치(Catch) 등 기업 후기 데이터베이스(Database) 플랫폼(Platform)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 한편 취업 후엔 온보딩(Onboarding)* 과정을 체계화해야 한다. 신입사원이 실무에 대해 만족할 수 있도록 해당 과정을 통해 입사 초기에 직무와 조직 문화 적응을 도와야 한다. 구체적으론 선배 직원과 멘토링(Mentoring)을 하거나 OJT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이브 엔터테인먼트(HYBE Entertainment)의 경우 온보딩 프로그램인 윈 투게더(Win Together)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신입사원은 입사 직후 직속 직책자에게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의 가치관인 '하이브 디엔에이(HYBE DNA)'를 익힐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신입사원의 적성에 맞는 직무를 맡을 수 있는 직무순환제***를 도입하여 이직률을 낮출 수 있다.

다음으로 기업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직원 간 세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조직 내 원활한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 예컨대 기성세대 방식의 총성과 헌신을 요구하기보다 수평적 조직 문화를 도입해 워라벨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문화를 형

성해야 한다. 더불어 상사가 신입사원 세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기업 내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할 수 있다. 일례로 LG넥스원(Nex1)은 1990년 대생이 대부분인 신입사원과 함께 '리버스(Reverse) 멘토링'을 진행했다. 이 활동은 경영 임원과 신입사원이 청년이 즐겨하는 취미 활동을 함께 하며 기성세대가 청년에게 멘토링을 받는 소통 프로그램이다. 또한 회사 내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상사의 부당 지시와 불합리한 업무 분배에 대한 내부 신고 시스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신입사원 정착화 및 복지 정책 지원 또한 필요하다. 일본에선 '유스에르(ユースエール) 인정제도'로 최근 3년간 신규 정규직의 이직률이 20% 이하인 중소기업을 인정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월간노동법률에 따르면 지난 2022년 4월 말 기준 900여 개의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인정받은 기업은 신입사원 채용과 육성이 적극적임을 홍보할 수 있었고 회사 직원자 수도 늘었다. 한편 앞서 제시한 온보딩 과정 체계화의 경우 중소기업은 예산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초기 퇴사 사전 예방의 차원에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매일일보에 따르면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대기업과의 대등한 거래 관계를 위한 여건 조성△대기업의 수익 일부 분배△중소기업의 교섭력 향상 등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매일일보에 따르면 한정화 한양대학교 명예교수는 “중소기업 임금이 낮은 이유 중 하나가 근속 기간이 짧기 때문이다”며 “장기 근무를 하면 혜택을 많이 받도록 지원해 주고 대기업과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교육△보육△주택 등에 공공재를 투입해 과감하게 보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의 초기 퇴사 문제는 사회 구조적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기업은 신입사원의 적응을 지원하는 문화를 마련하고 정부는 구직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청년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청년이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고 기업은 인재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상생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온보딩(Onboarding) 과정: 신규 입사자가 조직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
**OJT 제도: On the Job Training의 준말로 직무 현장에서 실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교육 방식
***직무순환제: 직원들이 조직 내에서 일정 기간 서로 다른 △기능△부서△직무를 체계적으로 이동하는 인적 자원 관리 제도

송주원 기자 11juwon@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야간) 2026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6학년도 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5.09.12(금) ~ 09.26(금)	2025.11.14(금) ~ 11.28(금)
고사장 발표	10.15(수) 15:00	12.10(수) 15:00
면접전형	10.18(토) 10:00 예정	12.13(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10.30(목) 15:00	12.18(목) 15:00
등록예치금 납부	11.03(월) ~ 11.07(금)	12.22(월) ~ 12.26(금)

■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증원 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 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 · 커뮤니케이션학과
- 다. 외국인인을 위한 한국 문화 · 문학학과

3. 지원자격

- 가. 국내 · 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 · 커뮤니케이션학과 : 지원자의 모국어가 외국어인 경우
- 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 라. 졸업사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졸업교육 및 대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제출서류(지원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 가. 공통제출 서류
- 1) 입학원서 1부(원서작성사이트에서 작성하여 출력)
- 2) 연구계획서 1부(원서사이트 또는 KFL대학원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3)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원본)

- 4) 재학 전학원 성적증명서 1부(원본)
 - 편입생은 전 대학교 성적증명서도 제출
 - 5) 학력조회증서 1부(원본)
 - 6) 가족관계증명서 및 호구부(외국인 학생만 해당, 공증 필요)
 - 7) TOPiK 3급 이상 성적표(외국인 학생만 해당)
 - 8) 재장출명서(외국인 학생만 해당-2인할리 이상)
 - 나. 외국대학 학위취득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
 -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국내 해당국가 대사관의 공증서 제출 필요
 - 다. 선택 제출서류
 - 1) 자격증 : 초·중·고사 자격증, 한국어교원 자격증 가산점 부여
 - 2) TOPiK(한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6.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7.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면접 고사장소는 추후 홈페이지 공지)
8. 특전
- 가. 성적 우수자 3학기 졸업 가능(별도의 조기졸업심사 진행)
 - 나. 3학기 졸업 트랙 운영
 - * 논문(24학점 이수), 연구보고서(28학점 이수), 추가학점(32학점 이수)
 - 다. 장학금 : 성적우수/우수외국인/동문/근로장학금 등 장학 혜택
 - 라. 졸업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 가능(외국과), 한국어번역과정 이수증명서 수여(번역 · 커뮤니케이션학과)
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kfl.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10.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교학과
- TEL. 02-2173-3982~3 FAX. 02-2173-3969
-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대 KFL대학원 교학처(대학원 106-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2026년 전기 신입생 모집

◆ 전형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5. 9. 18.(목) ~ 9. 24.(수) 16:00	2025. 11. 6.(목) ~ 11. 12.(수) 16:00
면접전형	2025. 11. 1.(토) 10:00	2025. 12. 6.(토) 10:00

※ 접수방법 : ①온라인 원서접수—②입학원서 출력본 및 기타 지원서류 제출(방문 또는 우편)—③지원자 유의사항 및 면접 장소 확인—④구술(면접)시험 응사—⑤합격자 확인

※ 면접전형 일시는 학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자격

① 특별전형

1)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

-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6년 2월(일본 소재 대학은 3월 졸업자) 취득 예정자
- 나. 석사학위 취득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원장의 인정을 받은 자
- 다.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과(전공)와 동일·관련 분야에 한하여 지원가능

2) 박사학위과정

- 가. 국내·외 대학원(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포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6년 2월(일본 소재 대학은 3월 졸업자) 취득 예정자
- 나. 석사학위 취득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원장의 인정을 받은 자
- 다.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과(전공)와 동일·관련 분야에 한하여 지원가능

② 일반전형

1)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

-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6년 2월(일본 소재 대학은 3월 졸업자) 취득 예정자
- 나. 석사학위 취득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원장의 인정을 받은 자
- 다. 학사과정의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가능



2) 박사학위과정

- 가. 국내·외 대학원(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포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6년 2월(일본 소재 대학은 3월 졸업자) 취득 예정자
- 나. 석사학위 취득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원장의 인정을 받은 자
- 다.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과(전공)와 동일·관련 분야에 한하여 지원가능

◆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모집과정 및 학과 / 제출 서류 등 세부사항 : gra.hufs.ac.kr 홈페이지 모집요강 참조

◆ 우편제출

-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1팀(대학원 1층 102호) 대학원 입시담당자 앞

◆ 입시문의

- 02)2173-2397



탈출구 없는 안전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지난달 11일에 방송된 티비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기초수급비가 끊길까 걱정한 사연자가 나왔다. 그는 아르바이트(이하 알바)를 하면 수급비를 지원받지 못해 알바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자

들의 근로 의지를 잃게 만들거나 탈수급 후에도 다시 빈곤으로 돌아가게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 기사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그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이다.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빈곤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한 시혜적 구호를 넘어 권리로서의 복지를 제도화했던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2015년△2020년△2024년 기준 약△164.6만△213.4만△267.3만 명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수는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전체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40% 이상으로 연령별 수급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해당 제도는 오랜 시행과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

해당 제도의 첫 번째 문제는 엄격한 선정 기준에서 비롯된 복지 사각지대다. 가장 큰 논란을 불러온 것은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신청자가 아무리 소득과 재산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한 자녀 혹은 형제 등이 있으면 수급이 불가능했다. 또 가족 간 실제 부양 관계가 단절됐거나 갈등이 심각한 경우에도 '법적 부양 가능성'만으로 수급이 거부되는 사례가 속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어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와 같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앴다. 또한 2026년도부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다음 해부터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해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란 계획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의 경우에 중증장애인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이어왔으나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은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실제 이전되지 않은 부양비를 수급자 소득에 포함해 산정해 수급 탈락자를 양산한다고 비판받아 왔던 부양비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엔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남아 있

어 실제로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지원에서 계속 배제되고 있다.

복지 수급 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성과 낮은 접근성은 수급 자격이 있는 이들을 탈락시키는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많은 잠재적 수급자들이 △신청 방법△진행 절차△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고 복잡한 용어와 서식을 마주하며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고령층과 같이 디지털 정보에 취약한 계층에게 이 같은 서류들은 해독하기 어려운 암호와 같다. 이로 인해 작성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거나 초반부터 지레 겁을 먹고 신청을 주저하게 만든다. 빈곤사회연대의 인터뷰에 따르면 A 씨는 “국어를 잘 못해 서류 작성하는데 꽤 힘들었다”며 “하마터면 서류 제출도 못할 뻔했다”고 전했다. 또한 △가족 관계△소득△재산 등을 증명하기 위해 요구되는 서류들을 준비하는 과정은 신청자에게 과도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지운다. 빈곤사회연대의 인터뷰에 참여한 B 씨 역시 다양한 채무 관계에 얽혀 있는 모든 금융기관을 돌아다니며 과거 거래 내역을 받느라 진땀을 흘린 경험에 대해 말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서류 누락에 대한 불안감은 복지제도의 문턱을 더욱 높여 가장 절실한 이들이 제도의 보호 밖으로 밀려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구조적 문제는 수급자들의 자립 의지를 저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현행 제도는 수급자가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으면 그 소득액만큼 생계급여를 삭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후 수급자들이 저축이나 적금 만기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 대부분이 생계급여에서 삭감되면서 저축의 보람을 느끼기도 전에 지원금이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저소득층을 위한 고금리 적금상품에 가입한 수급자들이 이자소득이 발생하자 오히려 수급액이 줄어드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는 표면적으로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근로의 가치를 상실시키고 '일할수록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빈곤의 덫'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나아가야 할 방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근간으로서 빈곤층을 보호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근로 의욕 저하△복잡한 행정 체계 △엄격한 수급자 선정 기준 등 여러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먼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과 과도한 재산 평가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실질적으로 폐지해 실제로 기초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운영하는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조차도 필수 사항으로 하지 않고 문제가 되는 경우에만 개별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양의무자 기준이 기초보장 급여 신청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나아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다.

복지 수급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경직된 행정관리체계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역시 시급하다. 우선 다양한 매체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급 대상자들에게 신청 절차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의 부재로 인해 신청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잠재적 수급자가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과도하게 복잡하고 어려운 신청 서식도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특히 노년층과 같은 정보 취약계층엔 신청 과정에서 좌절감을 안겨줄 수 있다. 따라서 서식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작성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친절한 안내가 병행돼야 한다. 그리고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이를 통해 서류 누락으로 인한 탈락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민원이나 공공서비스 신청 시 행정 공공 기관이 이미 수집하고 보유한 정보를 구비서류로 제출할 필요 없도록 구비서류 제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행정 서비스 신청 시 다른 행정기관의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여러 행정기관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농업인 바우처(Voucher) 지원△예방접종비 지원△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등 서류 제출을 생략하도록 민원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또한 '공공 마이데이터(Mydata)'와 같은 행정정보 연계 시스템을 활성화해 신청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행정기관이 자동으로 자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빈곤의 덫을 제거하고 수급자의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선 일을 시작하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는 제도를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 수급자의 근로 의욕 제고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인 근로소득공제 확대도 중요하지만 소득 증가 시 급여가 한 번에 끊기는 '절벽 효과'를 완화해 '근로를 통해 실질적으로 생활이 나아진다'는 인식을 고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근로소득 공제 확대와 청년 추가 공제를 통해 근로 유인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생계급여 측면에서 청년 해당 소득 공제를 확대해 현재 근로·사업 소득은 일반 수급자의 경우 그 소득 중 30%를 공제하되 29세 이하의 청년에게는 '40만 원+30%' 추가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다음 해부터는 청년이 스스로 근로해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한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한 공제나 단기적 사업만으로는 빈곤의 덫을 해소하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 능력이 있는 대상자의 진정한 자활을 위한 실질적인 자립 서비스를 확대해 장기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자립을 촉진하는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선 △근로 유인 강화△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행정절차 간소화라는 세 축에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가 온전히 자립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될 때 단순한 안전망을 넘어 수급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도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채연 기자 11chaeyeon@hufs.ac.kr

www.사사한줄토막.com

정치 ‘반도체특별법’ 신속한 통과, 주52시간 문제 해결 수순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청래 대표(이하 정 대표)가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주 52시간제 논란이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삼성전자 팹택캠퍼스(Campus)를 방문해 주재한 현장 간담회에서 “반도체는 우리나라라 경제의 든든한 기둥이자 국민 모두의 자부심으로 반도체가 살아야 우리나라 경제가 산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세계 1등 반도체

국가’ 비전(Vision)을 언급하며 당 차원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다짐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주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예외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었으나 최근 고용노동부가 특별연장근로 허용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며 절충점이 마련된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미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Fast track)’으로 지정한 만큼 국회 통과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사회 파주 육군부대에서 모의탄 폭발...장병 10명 부상

지난 10일 경기 파주시의 한 육군 포병부대에서 훈련용 모의탄이 폭발해 장병 10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중상자 2명을 포함해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에 따르면 해당 부대에서 실시된 K9 자주포 비사격 훈련 도중 발사음을 내고 연기를 묘사하는 훈련용 모의탄이 원인 불명의 폭발을 일으켰다. 이 사고로 △간부 4명△하사 1명△병사 5명이 △손△팔△허벅지 등에 화상을 입고 민간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부상자 가운데 상사와 중사 각 1

명은 중상 판정을 받았지만 생명엔 위험이 없는 상태다. 육군 본부 관계자는 “사고 당시 교육훈련 지원관이 현장을 통제한 가운데 총 12명이 훈련에 참여하고 있었다”며 “정확한 원인과 사고 경위는 군사경찰이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경제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역사적 전환점

지난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67% 오른 3314.53으로 마감됐고 지난 2021년 7월 6일(3305.21) 기록을 뛰어넘었다. 장종엔 3317.77까지 치솟으며 직전 고점(3316.08)을 넘어섰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나서며 코스피가 약 4년 2개월 만에 증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새로 기록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조3800억원을 순매수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 및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의 미국산

장비 반출을 허용할 가능성을 검토 중이란 외신 보도가 호재로 작용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 현행 유지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 또한 추가 상승세에 불을 지폈다. 시장에선 반도체 업황 반등과 정책 불확실성 완화에 대한 기대가 증시의 추가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국제 미국 구금 사태, 한국인 근로자 무사 귀환 성공

지난 10일 미국 조지아주(Georgia)에서 불법 체류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의 귀환 일정이 출국을 불과 10시간 앞두고 미국 측 사정으로 돌연 연기됐다. 외교부는 “출발이 어렵게 됐다”며 “조속한 귀환을 위해 협의 중이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이유와 재조정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구금자 호송 과정에서의 법 집행 방식 이견△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의 행정 절차 지연△사진 출국 형식 적용 여부 등이 일정한 미뤄진 이유로 거론됐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별

도 전문직 비자 신설과 승인을 제고를 우리나라 정부에 요청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장관이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부 장관 등 관련 행정부 인사들과 만나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12일 오후 미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다. 정부는 향후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해 이민 정책 및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주의를 기울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디지털 플랫폼 경제와 노동의 미래, 전통적 고용계약을 넘어서는 새로운 노동 형태의 등장

우리나라 플랫폼(Platform) 노동자가 22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8%에 달하는 수치이며 △대리운전△디지털 프리랜서(Digital Freelancer)△배달대행업 등의 업종에서도 급격한 성장 추세를 보인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변화는 '사용자 없는 고용, 고용 없는 성장'이란 노동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전통적 고용계약과 사회보장제도의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최첨단 기술의 발전

과 적용으로 이들이 창출하는 산업의 부가가치의 규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이 창출하는 노동의 미래와 그 사회적 의미를 성공회대학교 노동사연구소 정규식 연구교수와 함께 알아보자.

정규식 성공회대학교 노동사연구소 연구교수

Q1.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최근 우리 사회에 빠르게 확산되는 배경은 무엇이며 그로 인한 사회문제란 어떤 것이 있나요?

오늘날 우리는 필요한 정보의 검색이나 상품 구매△교환△배송 심지어 각종 친목 및 비즈니스(Business) 모임 모두 온라인(Online) 플랫폼을 매개로 수행되는 디지털 플랫폼 전성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원래 플랫폼은 교통수단과 승객을 연결하는 승강장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됐지만 최근엔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로 그 의미가 확장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대 초중반까지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부상은 참여자들이 수행하는 자발적 노동을 데이터로 수집해 매개함으로써 이용자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와 수익을 창출하는 창조적 혁신의 비즈니스 모델로 인식됐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기술을 통해 유휴자원이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실현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디지털 플랫폼 경제 모델은 △데이터 소유△불안정하고 통제권의 독점 △시장에 대한 거버넌스(Governance) 문제와 임시적인 일자리 양산△플랫폼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Q2. 플랫폼 노동이 가져오는 장점과 단점엔 무엇이 있으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엔 어떤 것이 있나요?

플랫폼 노동은 진입 장벽이 낮고 서비스 수요자 또는 의뢰인(기업 및 개인)에게 낮은 비용으로 적기에 필요한 인력을 단기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서비스 제공자인 노동자에게도 노동의 △시간 활용△유연성△자율성 등에서 일정 부분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들은 대부분 전통적 고용 관계가 아닌 하청이나 외주의 형태로 일하고 있으며 '직(Gig) 노동'*** 혹은 '초미세(Crowd) 노동'****으로 불리는 극도로 불안정하고 파편화된 작업으로 내몰린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합니다. 더욱이 노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비용은 개인에게 전가됩니다. 또 플랫폼 노동은 흔히 '자유로운 노동'으로 선전되지만 실제로 알고리즘(Algorithm)에 의해 △노동과정△노동시간△평가 등이 훨씬 체계적으로 통제됩니다. 이에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 체계의 재편△사회적 보호장치의 마련△플랫폼 기업의 독점 행위와 알고리즘 통제에 대한 명확한 규제 방안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Q3. 변화하는 플랫폼 노동 현실 속 기존 노동법 체계(근로기준법 및 사회보험법)가 갖는 한계와 그 대책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플랫폼 노동의 가장 큰 문제는 기존 노동법 체계와 달리 비표준적 계약과 고용을 양산하는 것입니다.

즉 플랫폼 노동자는 기존의 전통적인 임금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는 종사상 지위로 구분됩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산재△최저임금 등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노동자성에 대한 인정 여부가 매우 중요한데 이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9년 대법원에서 '배달의민족' 플랫폼에서 일하는 배달 노동자의 노동자성과 산재보험 적용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플랫폼 노동자의 표면적인 계약 상태 보단 △경제적 종속성△실질적인 업무 지휘 및 감독 주체△업무의 자율성△위험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단 것입니다.

Q4. 플랫폼 노동자들이 직면한 고용 불안정성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난 30~40 여년간 전 세계적으로 고용의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프리캐리아트'(Precariat)*****란 개념이 유행했습니다. 특히 영국의 경제학자 가이 스탠딩(Guy Standing)은 프리캐리아트를 현대 사회의 불안정성과 불평등을 상징하는 새로운 계급으로 주목하며 이들은 여가와 직업 안정성 없이 △노동△저숙련△저임금을 전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플랫폼 노동자들이 이러한 고용의 불안정과 사회적 안전망의 붕괴를 대표하는 핵심 주체로 부각하며 '플랫폼타리아트'(Platform+proletariat)*****란 용어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플랫폼 노동자들은 비표준화된 계약 형태가 대부분이기에 △고용△노동권 배제△사회보험△소득 불안정의 문제가 심



▲출처: 매일노동뉴스

각합니다. 즉 플랫폼 노동은 '사용자 없는 고용, 고용 없는 성장'의 대표적 사례가 됐고 플랫폼 기업들은 비표준적인 계약으로 근로기준법에서 벗어난 고용이 가능하며 최저임금 이하의 보수를 지급해 불안정과 저임금 노동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Q5. 플랫폼 경제가 기존 노동조합(이하 노조)이나 집단적 교섭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새로운 노동자 연대 방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음식 배달과 대리운전을 비롯한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확산되며 해당 영역에서 노조 조직화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2019년을 전후로 다양한 플랫폼 노조가 설립됐는데 형식이 대체로 초기업별 형태거나 독립 노조가 다수이고 직종별 노조의 성격도 보였습니다. 한편 지난 2019년 설립된 '라이더유니온'(Rider Union)은 지난 2023년 조합원 총투표 결과 94%의 찬성으로 창립 때부터 연대해 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해 기존 노동조합과 새로운 연대 방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달 노동자들만의 권익이 아니라 전체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들과의 연대가 중요함을 조합원 투표 결과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6. 플랫폼 경제 확산이 우리 사회의 고용 안정성과 불평등 구조에 어떤 중장기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나요?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플랫폼 경제의 확산은 △고용구조△산업구조△생활세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닉 서르닉(Nick

Smicek)*****에 의하면 플랫폼 경제는 데이터를 추출해 생산과정의 최적화에 적용하고 소비자의 선호를 파악해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 및 판매합니다. 이는 알고리즘 기술 장치를 통해 노동자를 통제하는 자본주의적 시스템의 최첨단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 자본주의' 체제하에 플랫폼 노동자들은 독립 계약자 혹은 개인사업자라는 외피를 쓴 채 새로운 형태의 불안정 노동자로 전락하고 있으며 극도로 낮은 노동시장 장벽 안에서 생존을 위한 무한 경쟁 속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반면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플랫폼 경제를 통해 창출한 이윤을 상대적으로 낮은 추가 비용으로 거의 독점하며 이 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 경제의 발전이 초래한 불안정 노동의 확산과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새롭게 창출될 기회를 어떻게 모든 구성원이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Q7. 해외에선 플랫폼 노동 규제를 어떻게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참고할 수 있는 사례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디지털 기술 및 플랫폼 경제의 발전에 따른 노동의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하기 위해선 '좋은 일자리'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 동반돼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독일 연방 노동사회부에서 제출한 '〈노동 4.0〉' 보고서는 '기계-인간 간 상호작용' 능력을 강화하는 교육을 통해 기존 노동력을 새로운 '좋은 일자리'로 재투입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독일△미국△영국△프랑스에선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유사(준)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 인정과 나아가 노동법과 사회보험법의 보호 규정(△고용△건강보험△산재 등)을 점차 확대 적용하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에선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비전형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위해 최소 소득의 보장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협약 체결 같은 정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금노동에 기반하지 않은 기본소득 제공과 사회보험 체계의 전환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경제 시스템으로 소비자화 생산자·서비스 제공자를 연결하여 가치 창출이 이루어지는 경제
**공유경제(Sharing Economy): 개인이 소유한 자원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른 사람과 공유·대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경제 모델
***직(gig) 노동: 고용주 필요에 따라 단기 계약이나 일회성으로 일을 맡는 초단기 노동 형태
****초미세(crowd) 노동: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대중이 소규모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노동 형태
*****프리캐리아트(Precariat): 'Precarious' (불안정한) + 'Proletariat' (프롤레타리아트)의 합성어로, 불안정한 고용·소득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신종 불안정 노동 계층
*****플랫폼타리아트(platform+proletariat): 'Platform' + 'Proletariat'의 합성어로, 디지털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며 불안정한 노동·소득 구조에 놓인 새로운 노동자 계급
*****닉 서르닉(Nick Smicek): 디지털 시대 '플랫폼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제시하며 플랫폼 경제가 데이터와 네트워크 효과를 기반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시장을 독점하는 현상을 분석한 학자



뒷담하는 기자
취재 뒷이야기

모두를 위한
글

나는 평소 글 쓰는 것을 좋아한다. 나에게 글쓰기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나 자신과 가장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다. 종종 내 생각이나 느낌을 수필로 쓰거나 특정 주제에 대해 글을 쓰곤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내 기분과 감정을 정리할 수 있다. 나만의 세계에 몰입해 한 줄씩 써 내려갈 때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세상에 대한 근심을 잠시 끊어낼 수 있다. 그러던 중 지난해 여름 이런 글쓰기 습관을 좀 더 넓은 곳에서 활용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과정에서 평소 즐겨 읽던 외대학보가 떠올랐다. 교내 곳곳에서 마주치는 외대학보 속 기사는 늘 나에게 새로웠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학생 사회의 문제를 짚어내고 때론 대중의 공감을 얻어내는 글들이 인상 깊었다. 그래서 나는 망설임 없이 지원서를 작성했고 그렇게 외대학보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방중 교육은 나에게 큰 전환점이었다. △기획 기사△사문 기사△심층 기사△인물 기사 등 다양한 기사 유형을 배우며 글쓰기의 새로운 세계를 마주했다. 취미로 쓰던 글과는 달리 기사엔 엄격한 규율과 형식이 존재했다. △맞춤법△시외성△정확성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었고 그중에서도 시외성은 중요한 부분이자 나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 시기상 맞는 이야기를 찾아내고 그것을 사실과 근거를 토대로 풀어내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았다. 또 나에게만 시외성을 갖는 것이 아닌 모두가 인정하는 주제여야 했다. 기사 작성이 단순한 글쓰기가 아닌 사실 교육 통째로 몸소 깨달을 수 있었다. 그동안 내가 써왔던 글은 나를 위한 글이었던 것이다. 이전까지 썼던 글은 내 기분을 정리하거나 내 생각을 풀어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기사는 '모두를 위한 글'이었고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았다. 내가 보기엔 아무렇지 않은 것이 남들이 볼 땐 거슬릴 수 있기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 사소한 표현이나 문장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거나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했다.

또한 글을 객관적으로 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깨달았다. 기사는 자신의 의견을 앞세우기보다 사실을 기반으로 독자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야 했다. 처음엔 나도 모르게 글에 사건을 섞거나 한쪽으로 편향된 기사를 썼던 경험이 있다. 만약 내 사건이 들어간 글을 대중들이 읽는다면 독자가 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는 소멸한다고 생각한다. 자신도 모르게 내 의견에 편향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좋은 기사는 사실에 기반한 객관적인 글인 동시에 대중들이 읽고 생각을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 기사는 독자에게 결론을 던져주는 글이 아닌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고 스스로 판단하게 만드는 글이어야 한다는 점이 크게 외달랐다.

그동안 '나를 위한 글'을 써왔다면 이번 '모두를 위한 글'을 쓰고 싶다.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을 자극하는 글을 쓰는 기자가 되고 싶다. 앞으로 외대학보 활동을 이어가며 내가 생각하는 '좋은 기자'의 모습을 늘 마음에 새기며 더 성실하고 꼼꼼하게 글을 써 나가자 한다. 글쓰기를 통해 나 자신을 성장시켜 왔듯 이제는 글쓰기를 통해 다른 이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다.



임재연 기자

[책 '사이보그가 되다'을 읽고]
장애: 극복 대상이 아닌 정체성

'사이보그(Cyborg)가 되다'는 '의족이나 휠체어를 신체의 일부로 볼 수 있을까'란 물음으로 출발한다. 김초엽 작가와 김원영 작가는 각각 청각장애와 지체 장애를 갖고 보청기나 휠체어와 함께 하는 삶을 사이보그라는 개념과 연결한다. 그들의 개성적이고 통찰력 있는 시선으로 장애를 결핍이나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닌 정체성의 일부로 바라보며 책은 전개된다.

이 책은 비장애인의 무의식적 차별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언젠가 치료법이 개발될 것이다"거나 "장애를 극복하다" 등의 장애인 응원 문구는 당사자에게 대책 없는 희망으로 느껴질 수 있단 것이다. 이렇듯 다수자의 시선에서 해석하는 태도는 혁신적 기술만이 유일한 해답인 듯한 테크노에이블리즘(Technoableism)*으로 빠지기 쉽다. 또한 작가는 사회적 지원의 차원에서도 장애인에게 과연 최신 의료 기술이 최우선인지 독자에게 물음표를 던진다. 예컨대 청각장애인에겐 수어나 문자 영역이 더 실용적임에도 의료 시술이나 로봇 외골격 같은 기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란 비판이 있다. 이를 가장 잘 집약하는 문장은 "나는 장애를 고치는 약이 나와도 먹지 않을 겁니다"는 문장이다. 이는 장애를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고만 생각하는 사회적 통념과는 완전히 다른 입장으로 장애를 부끄럽지 않게 여기며 있는 그대로 인정받으려는 선언이다. 이 부분에서 모든 장애인이 완치를 바라는 게 아니며 그들은 그들의 존재 자체로 존중받길 원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 책을 읽으며 내가 저번 케이티(KT) 광고에 느꼈던 의문도 명확해졌다. 기가지니(Giga Genie) 인공지능 음성 합성 기술을 홍보하는 해당 광고는 장애인이 기술의 주체가 아니라 수동적으로 혜택을 받는 자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장애인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철저하게 비장애인 관점에서 해석한 광고를 장애인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청능주의' 연출이라는 단어로 알 수 있다. 작가는 수어를 배워 소통하려는 노력이 아닌 농인이 말하고 듣기를 바란다는 연출이 비장애인의 눈높이에서 해석한 결과라고 비판한다. 지난 2021년부터 이어지는 장애인 지하철 시위와 함께 비장애인에게 그들의 입장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공존하는 존재이므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사이보그가 되다'는 이들에 대한 연민을 부추기는 책이 아닌 당사자의 진솔한 목소리를 담은 책이다. 따라서 주위에 마땅히 이들의 상황을 들을 수 없을 때 혹은 차별인지도 모르고 무심코 지나칠 때 장애인의 입장을 만나볼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테크노에이블리즘(Technoableism): 새로운 기술을 매개로 비장애중심주의가 강화되는 현상

송주원 기자 11juwon@hufs.ac.kr

[영화 '원더'를 보고]

울음과 친절함 중 하나를 선택할 땐 친절함을 선택하라

영화 '원더'는 얼굴에 선천적 기형을 가진 소년 어기 풀먼(Auggie Pullman)이 처음으로 일반 학교에 들어가며 겪는 이야기를 그린다. 낮은 환경 속에서 어기는 친구들의 따가운 시선과 편견에 부딪히지만 조금씩 마음을 나누고 우정을 쌓으며 변화를 만든다. 영화는 어기뿐 아니라 그의 가족과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아내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피어난 따뜻한 변화를 전한다.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다름'을 대하는 시선이 달라지는 과정이었다. 처음엔 두려움과 호기심으로 어기를 멀리하던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며 그의 진심과 따뜻한 성격을 알게 된다. 영화는 여러 사건과 친구들의 선택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단순한 동정이 아닌 존중과 공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는 먼저 원작 소설을 읽고 어기의 이야기를 상상해봤는데 이후 영화를 통해 배우들의 △시선△표정△화면 연출로 그 미묘한 감정을 직접 마주하니 또 다른 울림을 받을 수 있었다.

"울음과 친절함 중 하나를 선택할 땐 친절함을 선택하라"란 대사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나는 스스로 친절한 사람인지 자문해



본다. 겉으로 친절해 보일 때가 많지만 진심에서 비롯된 친절인지는 확인하지 못한 순간도 있었다. 그렇다면 진정한 친절이란 무엇일까. 말없이 베풀고 상대가 알아줄 기다리는 것일까 아니면 어떤 기대도 없이 먼저 다가서는 담백한 배려일까. 정답은 아직 모르겠지만 질문을 품는 것 자체가 내겐 중요한 고민이 되었다. 사람들은 날 상냥하다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조차 주변에 세심한 관심이 부족했던 사실을 깨닫곤 한다. 내 시선은 늘 나 자신에게 머물렀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엔 무심했다. 그러나 영화를 보며 문득 생각했다. 만약 내 곁에 어기 같은 친구가 있었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솔직히 먼저 다가갈 용기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영화를 보고 난 지금은 다짐한다. 고단한 싸움을 이 어기는 △아이들△어른들△청춘들에게 더 따뜻한 마음으로 친절을 건네고 싶다고. 그것이 내가 이 영화를 통해 얻은 가장 큰 배움이자 앞으로 지켜가고 싶은 삶의 태도다.

이나경 기자 10leenagyong@hufs.ac.kr

1106호 학보를 읽고

가을 하늘 아래 남은 외대의 고민

언젠가부터 이번 여름이 가장 덥다는 기사를 매년 보고 있는 것 같다. 여전히 늦더위가 기승을 부려 새 학기가 시작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보통 2학기 시작쯤엔 선선한 바람이 불지 않았던가. 이번 새 학기를 맞아 외대학보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궁금해졌다.

2면에선 우리학교가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한 소식을 다뤘다. 우리학교는 △외국어 및 외국학 중심 교육혁신 △학생 선택권 강화와 맞춤형 지원체계 △IR센터(Institutional Research Center)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고도화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정은 우리학교 총장은 외국어와 외국학 기반의 차별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를 이끄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사회적으로 우리학교 학생들은 외국어 실력이 출중할 것이란 기대가 있다. 실제로 타 대학에 비해 언어 전공 기초 과목의 시수가 많고 고난도인 편이며 다양한 유학생들과 교류하며 언어의 실전 감각을 살릴 기회 또한 많다. 앞으로도 우리학교가 외국어 교육에서의 강점을 유지하며 아시아 3대 외국어 대학교의 명성을 지켜주길 바란다.

3면은 국제학사 휴게실의 낯은 이용률과 미흡한 관리로 지적됐다. 잠시 눈을 돌리기 위해 휴게실에 방문한 적이 있지만 그때마다 사람은 2명 이내였던 기억이 있다. 더불어 휴게실보다는 오히려 미네르바 콤플렉스 지하 1층이나 도서관 휴게실에서 더 편안

한 느낌을 받았다. 앞으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휴게실이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Stress) 해소의 공간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

6면부터 7면에선 이원화 캠퍼스 전환 정책의 현황을 조망했다. 학교 측은 이원화 캠퍼스란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재학생 대부분은 '서로 다른 학교'로 인식하고 있다. 캠퍼스 간 이동 또한 물리적 거리로 인해 사실상 어려우며 다른 캠퍼스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경우도 타 캠퍼스 학과를 이중이나 부전 공으로 이수하는 학생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의 축제는 분리돼 운영되기도 한다. 이원화 캠퍼스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교차 수강과 공동 축제 등 이원화를 공고히 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들이 필요해 보인다. 이후엔 대내외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1106호는 최근 불거진 매크로(Macro)로 인한 수강신청 피해 문제와 함께 지속 가능 사회에서 우리학교의 역할과 과제를 다뤘다. 오늘날 대학은 단순한 교육 기관을 넘어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 사회 실현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대학 언론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외대학보가 앞으로도 학교 내부 소식뿐만 아니라 시대적 요구 속에서 대학이 수행해야 할 도의적 책무까지 꾸준히 전해주길 바란다.

이혜인(중국어 · 중외통 22)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1106호 학보를 읽고

끝나지 않은 여름, 끝나지 않는 문제

이번 해의 반나절이 지나왔지만 여름의 열기는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고 있다. 계절이 바뀌어도 쉽게 가시지 않는 더위처럼 우리 주변에도 여러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외대학보 1107호는 학내 문제부터 사회적 문제까지 쉽게 사라지지 않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단면들을 깊이 있게 담아내고 있다.

4면에선 흡스돔(HufsDorm) 기숙사 공용 공간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사는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용 공간의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노후화 및 세탁실 시설 부족△열람실 사석화 문제△휴게실 청결 문제 등이 학생들의 불편을 가중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현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론 공용 공간 점검의 부재와 미비한 관리 제도를 꼽는다. 기사는 학생들의 의견이 일방적인 소통 창구를 통해 전달될 뿐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나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단 점을 비판하고 있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법 부착과 세탁기 추가 설치 등 시설 개선뿐 아니라 QR코드(Code) 기반의 온라인(Online) 예약 및 민원 시스템 도입과 같은 혁신적인 제도를 제안한다. 흡스돔 공용 공간이 단순한 생활 공간을 넘어 학생들이 교류하고 성장하는 장이 되길 희망한다.

6면에선 1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이원화 캠퍼스 정책의 현주소를 날카롭게 파헤친다. 가장 큰 문제는 '서로 다른 학교'란 인식이며 이는 △노후화된 시설과 투자 부족△다른 입학 난이도△캠퍼스 간 특성 모호함으로 인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입

학 난이도 차이가 서울캠퍼스 학생들의 여차별 심리를 낳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단 점을 짚어낸다. 또한 캠퍼스별 특성을 명확히 하고 낯은 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공동 행사 확대를 통해 학생들의 동질감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으로 입시 결과보다 '외대인'으로서 생존을 위해 소속과 상관없이 더욱 뭉쳐야 할 때이므로 △교수△교직원△학생 모두의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을 촉구하길 기대한다. 12면에선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기사는 법안의 시작 배경부터 핵심 내용 사회적 파장까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에서 비롯된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대상 확대△사용자 범위 확장△손해배상 책임 제한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기업 경영권 침해와 산업 경쟁력 약화가 능력에 대한 우려가 눈에 띈다. 원청과 하청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해외 투자나 공장 자동화를 가속할 수 있단 전망은 단순히 노사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을 경고한다. 기사는 해당 법이 단순한 노동 문제 이상의 복잡한 사회적 파급력을 가졌음을 보여주며 앞으로의 보완과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다소 어려운 현실을 다루면서도 불편한 진실을 향해 가까이 발걸음을 옮겨준 외대학보 기자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이 비록 단기간에 해결되진 않겠지만 서로 외면하지 않고 함께 고민해 나갈 때 비로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정소희(바이오 22)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빈의자

국 · 부장 고정칼럼

작은 불편이 남긴 큰 물음

요즘 날씨는 여름의 끝자락과 가을의 문턱 사이를 오가고 있는 듯하다. 오전엔 뜨거운 햇살이 여름의 기세를 붙잡아두는 듯하지만 저녁이 되면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계절이 교차하는 순간을 실감하게 된다. 하루 안에서도 크게 달라지는 기온처럼 우리 주변의 변화 또한 다양하다. 이번 1107호에선 이러한 변화 속에서 마주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내고자 한다.

4면에선 우리학교 식당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다. 조리원 인력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난달부터 인문관 학식 김밥과 교수회관 석식이 폐지돼 학생들의 불만이 가득하다고 언급됐다.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변화로 인해 식사를 해결함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

5면에선 우리학교 알림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현재 알림 시스템은 다양한 채널로 알림을 전달하지만 △무분별한 알림△알림 거부 복잡성△알림 누락 및 지연△중복되는 알림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 됐다. 매번 학교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것들이 되려 불편함을 초래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사이버대학교의 SMS 수신 여부 관리 시스템 △위싱턴 대학교의 UW Connect 시스템△이화여자대학교 EWWA HOME 앱과 같은 타 학교들의 사례들을 참고해 알림 시스템을 개선해 학생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

7면에선 최근 퇴준생과 중고 신입 등의 신조어를 탄생 시킨 청년층의 조기 퇴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조기 이직 및 퇴직은 △구직 시 직무에 대한 사전 파악 미흡△기업과 신입사원 사이의 문화 불일치△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현상 등과 같이 사회 구조적 원인들에 의해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이직물

상은 기업은 물론 개인에게도 큰 타격이 존재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론 △수평적 문화 도입△온보딩 과정△중소기업 신입사원 정착화 및 복지 정책 지원 등이 존재하며 이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이직률이 조금이라도 더 낮아지길 바란다.

8면에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언급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론 △구조적 문제△복지 수급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과 낮은 접근성△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빈곤의 덫'으로 적용돼 그들의 근로 의지를 꺾게 만들어 자립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없단 평가가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 확대△조사자의 유연한 대응△행정 정보 연계 시스템 연계 등의 도입과 같은 행정적 보완이 필요한 때다.

9면에선 플랫폼 노동이란 새로운 노동의 형태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플랫폼 노동은 진입 장벽이 낮고 서비스 수요자 또는 의뢰인에게 낮은 비용으로 필요한 인력을 단기간에 제공할 수 있단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불평등 구조에 영향△비표준적 계약과 고용 양산△최저임금 이하의 보수 등과 같은 문제점 또한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정책 확보가 가장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변화는 늘 낯설고 때론 버겁게 다가온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갈 힘을 얻는다. 아직 그 무엇도 완벽하지 않기에 작은 불편함에도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이를 바탕으로 해결해나가는 여정을 모두가 동참했으면 한다.

현재우 기자 10jaewoo@hufs.ac.kr



기자들의 한마디

외대학보 111기...



현재우: 우리학교 근처 맛집 아시는 분 연락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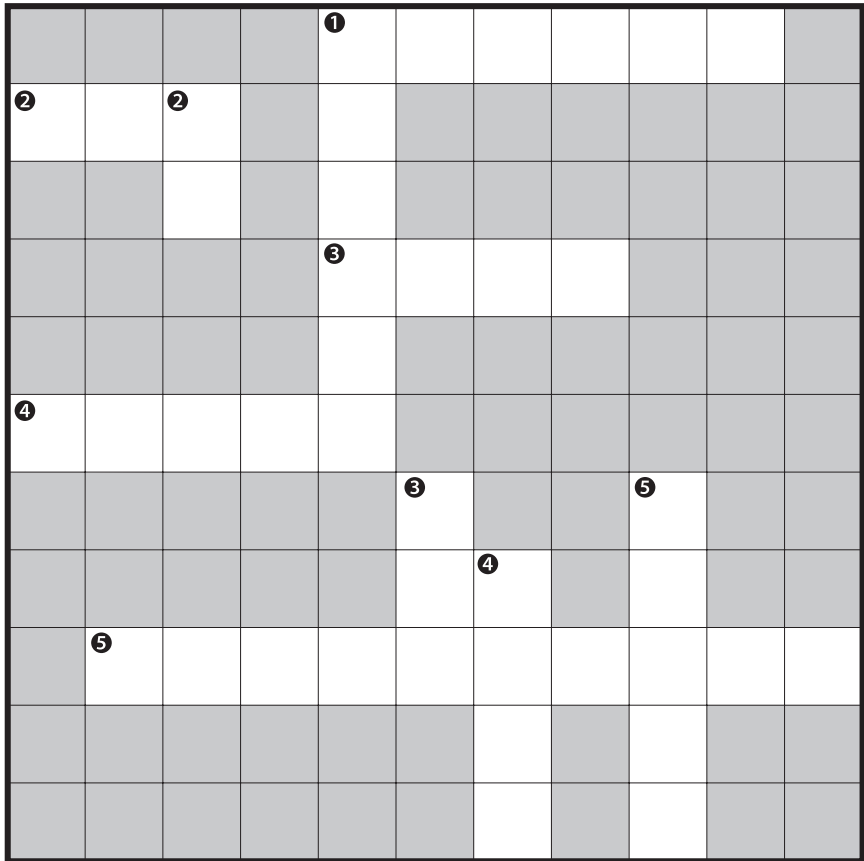
송주원: 조기 퇴사가 아닌 조기 퇴근 기원

이해불: 가장 큰 변화는 가장 사소한 관심에서 시작합니다

김민서: 이번 마감도 힘들지만 재밌었습니다!



십자말풀이



가로

- 는 (platform+proletariat): 'Platform' + 'Proletariat'의 합성어로, 디지털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며 불안정한 노동·소득 구조에 놓인 새로운 노동자 계급 (12면 참조)
- 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등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면 참조)
- 플랫폼 노동자는 기존의 전통적인 임금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는 중사상 지위로 구분됩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등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12면 참조)
- 엄격한 '○○○○○ 기준'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실제로 가족 도움을 못 받는 사람들도 지원에서 배제되며, 일부 완화가 진행·예정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 (3면 참조)
- 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8면 참조)

세로

- 는 고용 계약을 맺지 않고, 모바일 앱, 누리소통망, 웹 사이트 등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비정기적으로 일감을 받아 수행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12면 참조)
- '각종 오류 역시 학생들의 불편을 가중시킨다. 동일한 공지가 단시간에 연속적으로 도착하거나 반대로 00돼야 할 알림이 누락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4면 참조)
- 퇴준생은 직장에 다니며 창업이나 이직을 위해 준비를 하는 사람으로 퇴사 준비생의 준말이다. (8면 참조)
- 무엇보다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과 고용 안정 보장이 시급하다.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 급여와 임시직 위주의 고용 형태는 숙련된 조리 인력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 (4면 참조)
- 인력 수급 문제의 경우 잔존 인력을 조리 업무에 투입하고 배식 및 세척 업무와 같은 비주요 작업을 보조할 00000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특정 시간에 사람들이 물리는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 (4면 참조)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계정 (@hufspress.official)을 팔로우 하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두 분에 한해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사설

우리가 서로를 미워해선 안 되는 이유

적지 않게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서로를 향한 손가락질은 일상이 되었다. “다름을 존중하라”는 구호는 익숙하지만, 실제 삶에서 이를 실행하는 일은 여전히 요원하다. 미움은 그 공백을 파고드는 가장 쉬운 감정이다. 빠르게 결론을 내리고, 복잡한 맥락을 생략하게 하며, 나와 타인을 선명히 나눠 안심시키는 값싼 확신을 준다. 그러나 그 싸구려 확신이 남기는 대가는 결코 싸지 않다.

미움은 타인을 겨냥한 화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둔탁한 추다. 미움은 판단을 단순화하고 사고의 길을 단축시킨다. 미움에서부터 오는 불호의 감정은 비판으로부터 비롯되는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 비판은 문제를 정확히 겨냥하지만 미움은 대상을 통째로 지운다. 비판은 “그 행동이 잘못”이라고 말하고, 미움은 “그 사람 자체가 잘못”이라고 박제한다.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을 편협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타인을 미워하지 말아야 하는 첫째 이유다.

또한 미움은 나를 둘러싼 세계를 왜곡한다. 모든 인간에게는 저마다 살아온 다양한 배경이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타인의 한 장면으로 그를 판단하길 좋아한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돼 급하게 나가다가 문을 광 닫아버린 동료△여러 일을 동시에 수행하느라 답장이 느린 친구△막대한 책임의 압력에 짓눌려 예민해진 상태에서 회의에 참가해 공격적으로 보이는 상사를 떠올려보자. 물론 그런 맥락이 타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면책이 될 순 없다. 다만 맥락의 부재는 과잉 형벌을 낳는다. 미움은 그 사람에 대한 선부른 평가를 유도하고 이는 곧 만연한 사회적 불신으로 이어진다. 이렇듯 미움은 나와 너의 관계를 넘어서, 우리가 함께 꾸리는 장(場)의 질서를 훼손한다.

그렇게 미움은 결국 서로의 ‘가능성’을 말려 죽인다. 인간은 완성본이 아니다.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는 동일하지 않다. 우리의 △선택△습관△언어는 지속적인 사회적 교류 속에서 그 맥을 잡아 나간다. 그러나 미움은 그러한 사회적 교류를 방해한다. 이는 결국 개인의 변화와 성장을 가로막는다. “사람과 문제를 분리하라”는 진부한 문장이 여전히 유효한 이유다.

그렇다면 미워하지 않기 위해선 우린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언제든지 상대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청자의 자세와 상대의 입장을 고려해줄 수 있는 배려심을 갖추는 것. 그것이 ‘미움’이란 편협한 사고로의 매몰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결국, 우리가 서로를 미워해선 안 되는 이유는 도덕적 훈계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실용의 언어이자 생존의 기술이다. 미움이 가득한 공동체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으며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며 나아간다. 미움을 덜어낸 공동체는 다투더라도 고치는 법을 안다.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은 서로를 떠나지 않게 한다. 떠나지 않는 사이, 비판은 견고해지고 비난은 줄어든다. 그 견고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조금씩 나아간다.

오늘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마지막으로 묻고 싶다. 당신들은 미움을 잠시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는가. 당신들은 느리고 번거로운 이해의 노동을 택할 용기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고쳐 쓸 수 있다는 믿음을 다시 꺼내 들 준비가 되었는가.

·이승원(외대학보 편집장)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박정운
편집인 겸 주간 지성욱
편집장 이승원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시와 번역으로 삶을 풀어내는

정은귀 교수를 만나다

정은귀 우리학교 교수(영어 89)는 우리학교 영어과를 졸업한 후 현재 △영미시 번역가 △우리학교 영미문학문화학과 교수△작가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정은귀 교수는 영미문학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꾸준히 저술과 번역문을 발표하고 학문적 탐구와 창작의 경계를 넘나들며 학생들과 독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그녀의 주요 논문은 '루이즈 글릭(Louise Glück)과 서정시의 귀환: 〈입장료 1달러 시〉의 수행성 다시 생각하기'가 있으며 현재까지 그녀가 번역한 한영 및 영한 시집은 총 20권에 달한다. 학문과 문학의 경계를 넘나들며 사유의 지평을 넓히는 정은귀 교수를 만나보자.



Q1. 우리학교 영어과에 입학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원래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 국문과에 진학해 시인이 되고 싶었으나 서울대 진학에 실패했습니다. 이후 후기 대학 중 가장 좋은 대학이 우리학교 영어과였기에 우리학교 영어과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사실 국문학을 전공하고 싶었지만 우리학교엔 국문과가 없어 전통적으로 가장 좋은 과였던 영어과를 선택했습니다. 많은 일들이 우연으로 결정되는데 지금은 우리학교 영어과를 나온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Q2. 우리학교 재학시절 어떤 학생이었나요?

대학 시절엔 흔히 말하는 공부 벌레였습니다. 우리학교 영어과에서 제공하는 수업이 너무 재밌어 도서관에서 살았어요. 당시엔 지방에선 영어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서 영어를 새롭게 배우는 과정이 재밌었습니다. 학교 수업만 들어도 영어 △듣기△말하기△읽기△쓰기 실력이 향상되는 게 즐거웠습니다. 학부 때 영문학의 세계에 눈을 떠 대학원 진학을 비교적 일찍 다짐했어요.

Q3. 재학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아주 특별한 경험은 아니지만 도서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학교생활을 하며 주로 도서관에 많이 갔어요.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 캠퍼스가 작다 보니 자주 다니는 길에서 마주친 낯선 타과 학생들의 얼굴도 되게 친숙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도서관과 강의실을 오가는 길에 낮익은 학생들을 만나면 반가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Q4. 영미문학과 문화 연구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우리학교 영어과는 주로 어학과 문학을 고루 가르쳤습니다. 영문학을 공부하다 보니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1등을 하기도 했죠. 당시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져 장학금이 절실해 열심히 공부해 성적이 잘 나왔고 이 성적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 학업에 더욱 열중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공부에 재미를 붙이고 영문학의 세계에 눈을 뗄었습니다. 특히故 이영걸 교수님의 영시 수업이 좋았어요.

Q4-1. 문학의 여러 갈래 중 시를 선택해 연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국민학교 때부터 시를 좋아해 시를 즐겨 외웠고 시인으로 사는 게 꿈이었어요.故 이영걸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며 영시가 좋아졌고 본격적으로 '계속 공부를 해야지'란 다짐을 한 건 4학년 때였습니다. 특별히 시를 좋아하는 이유는 짧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짧은 글 안에 △문화△시대적인 감성△역사를 함축적으로 제시해 독자들에게 △공감△비판적 통찰력△위로를 함께 전하는 것이 시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Q5. 번역가로 활동하며 기억에 남는 특별한 경험이 있나요?

저는 시를 번역할 때 양방향 번역을 합니다. 양방향 번역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제가 더 주목받는 것 같기도 해요. 다양한 시인들을 만날 때마다 매번 깊이 몰입해 제가 그 시인이 되는 것 같아요. 앤 섉스톤(Anne Sexton)의 시를 번역할 땐 제가 60·70년대 미국인의 삶을 살아낸 여성 시인이 되고 19세기 빅토리아조 영국 시인 크리스티나 로제티(Christina Rossetti) 시를 번역할 땐 이탈리아에서 영국으로 망명해 시인이 되기만을 꿈꿨던 문학자를 좋아하는 가문의 막내딸이 된 것 같습니다. 남성 시인을 번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William Carlos Williams)를 예로 들면 그는 의사인 동시에 시인이었습니다. 때문에 그의 시를 번역할 땐 대공황기의 뉴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의사이자 시인이 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며 다른 사람이 돼가는 과정이 짜릿하고 좋습니다. 번역하기 전 시인이 살아온 과정을 돌아보고 제가 그 시인의 삶을 대신 사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기쁨△슬픔△쓰라림△아픔 등의 다채로운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Q5-1. 번역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순간과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번역은 항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한국인이다 보니 "영어에서 한국어로 옮길 때가 더 쉽지 않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영어로 옮길 때나 영어에서 한국어로 옮길 때나 어려움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오래 생각하기'입니다. 하루 종일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밤낮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 시를 번역할 때 생각나는 일화가 있습니다. 윌리엄은 실험적인 시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의 시는 행간이 끊겨 있기도 하고 어떤

행은 갑자기 들여쓰기도 합니다. 스탠자(Stanza)의 위치와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를 번역할 때도 최대한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어와 한국어는 어순이 다르기에 완벽히 똑같이 번역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생각해요. 마치 수를 놓듯 짜 맞추기를 계속하는 거죠. 윌리엄 카를로스의 시의 경우 계속 고민하다 운전하던 중 좋은 배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며 손등에 떠오른 생각을 써놓고 반영한 적도 있어요.

Q5-2. 번역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나요?

저는 주로 출판사에서 요청이 먼저 오는 편입니다. 출판사에서 번역 요청이 오면 제가 영시를 전공해 좋은 시인을 많이 알고 있어 다양한 시인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샘플(Sample) 번역을 통해 출판사를 찾아야 할 때도 있어요. 계약을 맺고 나면 번역가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함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번역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해요. 끊임없이 탐입하는 여러 가지 다른 일 사이에서 번역가로서의 호흡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아침에 번역을 합니다. 오전 4시 반부터 8시까지 집중적으로 번역을 해요. 단번에 만족스런 번역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에 부지런하게 생각하며 계속해서 수정 작업도 합니다.

Q6. 직접 작품을 집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원래 교수이자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가이자 번역가로서의 개성이 생겼더라고요. 처음부터 '책을 내야 되겠다'고 생각하진 않았었습니다. 한 신문사에서 시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컬럼(Column)을 쓰고 있었는데 제 글을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이후 독자들이 많아지다 보니 출판사에서 책을 내자는 제안이 왔어요. 제가 지금까지 집필한 산문집이 4권이고 번역서는 약 35권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출판할 가치가 있는 책인가' 매번 고민합니다. 제 책을 좋아해 주는 독자들이 있어 그 힘으로 계속해서 책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Q7. 작가로서 꼭 전하고 싶은 가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말에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하는 △글쓰기△문학 공부△번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의 힘입니다. 어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대개 △배제△소외

△증오△혐오의 말이 그렇죠. 저는 반대로 사람을 구하는 말들이 있고 그런 말들이 모여 좋은 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르를 불문하고 사람을 구하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미약하게나마 그 몫의 일부분을 감당하고 싶어요. 여러 글 중에서도 가장 순도 높게 사람을 구하는 말의 언어는 시란 믿음이 있습니다. 제 연구의 길은 그 가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Q8. 앞으로의 계획 또는 이루고 싶은 꿈이 궁금합니다.

이번 해 가을에 '번역가의 단어'란 책이 나올 예정이고 미국 시인 로버트 크릴리(Robert Creeley) 시집도 곧 나올 예정이에요. 가치가 혼돈되고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학생들에게 인문학을 통한 배움이나 사유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일이 행복해요. 어떤 이들은 인문학이 쓸모 없다고 하지만 저는 앞으로 인문학의 가치가 더 중요한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생각하고 질문하는 힘을 길러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도 말의 힘을 전하며 사람을 살리는 말을 만들고 엮는 사람이 돼 학생들에게도 제가 시를 통해 얻는 힘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Q9. 마지막으로 우리학교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입시의 측면에서 '최고의 학부'에 진학하지 못했던 쓰라린 상실감을 안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학교는 훌륭한 세계시민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터 같아요. 다양한 융복합 학문을 공부할 수 있고 외국인도 많이 만나며 다름을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학생들이 겸손하고 착해 자신이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 안에 쉼 없이 자라고 있는 미래의 나를 크고 단단하게 그려보며 오늘을 기쁘게 살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엇이 '되어가는(Becoming) 존재'거든요. 그 힘을 믿으세요.